SBS 매거진 3

SBS Magazine·1994

「그것이 알고싶다」 MC
박원홍 방송위원

SBS 서울방송 Ch6 AM792

세상은 더러운 연못이며 낡고 습한 창고와도 같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햇살도 스며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하기 힘든 이 세상을 진심으로, 그리고 따뜻하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사랑해야 할 과제가 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SBS 로비에서 처음 대면한 박원홍은 화

「그것이 알고 싶다」 MC 박원홍 방송위원

합리적인 생각, 따뜻한 시선의 이지적 '청년'

면으로 보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럽고 친근한 인상을 갖고 있어 그를 기다리며 떠올렸던 이런 생각에 적으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그를 만나려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오랫동안 미국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름있는 교포 언론인이며 현재는 SBS의 방송위원이라는 묵직한 중량감을 지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음습한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새 기운을 불어넣은 썩 훌륭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새로운 진행자로서의 그를 보게 되기를 원했으므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2대 진행자로 그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지난 2년 동안 프로그램의 얼굴과도 같았던 문성근의 이미지가 워낙 카리스마적이었던지라 달라진 새 얼굴에게 염려스러운 눈길을 보내던 이들에게 그의 너무나도 순조로운 데뷔는 의외스러울 정도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역할이란 다큐멘터리 장르에 끼쳐온 이 프로의 선구자적 역량과 그동안 시청자에게 인상 깊어진 독특한 구성방식 등을 놓고 생각할 때 까다롭기가 그지 없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행자에 대해 이모저모 알고 나면 그가 이 까다로운 역할에 대한 우려를 단 몇 회의 방송으로 잠재운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작년 12월 15일에 SBS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이틀 후에 무작정 비행기 집어타고 귀국해서 곧바로 테스트 받고 그리고 합격하고, 숨돌릴 틈도 없이 방송을 시작했지요."

올해 쉰둘인 박원홍이 지난 20년 동안 재미교포로 살았던 이유는 유신치하에서 그 체제에 빌붙어사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였다. 고려대 정외과를 나와 64년 한국일보를 시작으로 한창 의욕적인 기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던 그에게 70년대의 정치상황은 직업에 대한 심한 염증과 함께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 천성이 온건주의자인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 아래 미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19년이 흘렀고, 그는 LA지역에서 박원홍이라는 본명보다는 '월터 박'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한 사업가 겸 컬럼니스트로, 또 'LA라디오 한국'의 뉴스 앵커로 성가를 드높이는 인물이 되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성공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그곳 생활을 놓아두고 그는 어느날 문득 귀국을 감행해버린 것이다.

"우리 나라가 변했고, 나 또한 변한 때문이죠."

함축성 있게 밝힌 그의 '귀향 이유'이다.

시대가 그 옛날 그의 양심을 괴롭히던 군부 통치와 안녕을 고했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한층 더해가는 그의 '귀소본능'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라는 얘기이리라.

어딘지 모르게 쉽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외양과는 달리 그는 자신이 보기보다는 온유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

이다. 안경 속의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은 유리컵에 담긴 양파의 실뿌리처럼 섬세하다. 그런 개성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곧 그만의 분위기로 채우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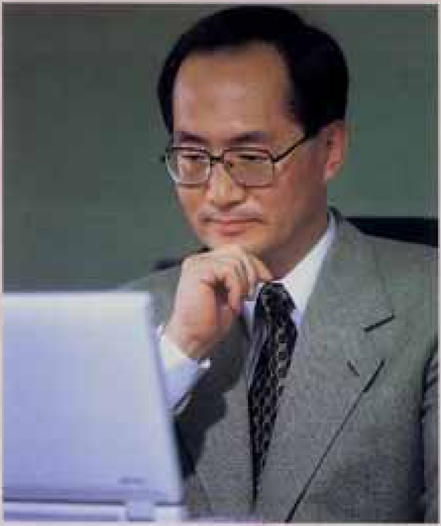
'MC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퍼스낼리티가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간다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그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섯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각각의 기획회의를 비롯해 현장 취재 등의 제작 과정에 몸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한번씩은 동참하려는 열성을 보인다.

그에게서 풍기는 지적이고 끈기있어 보이는 느낌은 '정중동'을 요구하는 이 프로그램에 딱 들어맞아 보인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제 할일을 하면서 대충 소리만 들어도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던 일을 접어두고 눈과 귀를 화면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 말이다.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그 역시 낯설음과 두려움을 느꼈을 터이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 그에게서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방송과 글쓰는 일을 끊지 않아온 관성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이력을 되짚어 보는 데에 있어서 그는 놀랄만한 기억력을 보여준다. 그런 그가 그 부분의 능력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체질적으로 기자시절의 기질이 워낙 몸에 배어 있어서라는 게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무엇이든지 기록해두려는 그의 습관은 본받을 만하다. 오랜만에 돌아온 보국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자동차 없이 지내고 있다는 그는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다니며 그때그때의 생각과 느낌을 휴대용 녹음기에 메모해 두고 있다. 그가 지극히 합리적이며 생각할 줄 아는 인물임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는 동안 그가 테니스와 골프 등 웬만한 운동에도 두루 조예가 있고 컴퓨터 만지는 솜씨도 젊은이 못지 않으며, 지갑 속에는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의 사진이 곱게 들어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친구처럼 대화가 통하는 아버지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꺼워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덤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계단 앞에서 그와 헤어지면서 문득 존 메이스필드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려냈다.

—나는 아무래도 다시 바다로 가야겠다—

'아무래도'자신의 본질을 잊지 못해 과감하게 이땅에 다시 돌아온 그가 두려움없는 인생을 사는 '청년'처럼 보였다. S

글/윤종영·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SBS 매거진 3

SBS Magazine·1994

SBS매거진·1994년 3월호·통권 28호·1994년 3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라-5316·
발행처/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우편번호 150-777, 대표전화 786-0792, 369-1114·
인쇄인/김현식·인쇄처/주식회사 동아출판사, 대표전화 866-8800·
사진식자/광일사식, 전화 735-3665·편집처/케이컴, 전화 713-7143

「최전선의 한국인」

「이 남자가 사는 법」

'즐거운 직장 만들기'

4 커버스토리/「그것이 알고 싶다」 MC 박원홍 방송위원
합리적인 생각, 따뜻한 시선의 이지적 '청년'·윤종영

10 SBS 뉴스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14 방송 지구촌 ·민충기 ·허원제

16 연중 기획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3 「메트로폴리스 점검」
미리 가본 앞서가는 도시의 내일·이선명

22 연중 기획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4 「최전선의 한국인」
'열사의 땅'에 한국의 꿈을 심는 개척자·윤동혁

새 프로그램

28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통진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진실·이희용

34 일요 아침드라마 「질주」
오늘을 사는 명랑 여성의 미래 가꾸기·박석주

40 아침 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풀꽃 같은 여자가 그리는 고운 사랑·이성아

48 화제의 코너/「열려라! 웃음천국」의 '천국 동화'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꼬집어주는 세태풍자·최용욱

52 새 얼굴/「공룡선생」의 제2기 '공룡군단'
싱그러움을 가득 싣고 남녀공학으로 새 출발·정은영

58 초점/ 드라마 「결혼」에서 세 자매가 보여주는 결혼의 척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물음·김은영

64 라디오 채널톱/「출발 성공시대」의 '즐거운 직장 만들기'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는 솔직한 자리·방성원

■ 발행·편집인/윤세영
■ 주간/김우광
■ 부주간/손규환
■ 기획/남지혜·신선화
■ 사진/서창식·정문경·신동준

SBS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서울방송의 동의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70 프로그램 탐험/월화드라마 「세남자 세여자」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든 젊음의 패기와 사랑·손선영

78 큐 스튜디오/「신세대 전원집합」
풋풋하고 건강한 젊음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정교민

86 94년 달린다/아침 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의 탤런트 장혜숙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 아침 햇살같은 여자·신선화

88 프로듀서의 세계 [1] 주일청
뚝배기 같은 정감으로 빚어온 드라마 미학·강영란

94 사람 사람들 [11] 방송 소품인 임응순
드라마 구석구석에 '생활'을 꾸미는 알뜰한 살림꾼·박주필

100 SBS 소식/SBS문화재단, 서암학술장학재단 '94 정기 이사회 개최
환경보전과 과학기술 연구에 지속적인 지원

102 매거진 컬럼
뚝심있게 밀고나간 실험정신의 쾌거·최인국

106 나도 한마디/ 박정희·이혜련

108 시청자가 쓰는 방송평/ 김이경·김정화·박유미·임승애·안승미

SBS 문화살롱

116 영화/「화엄경」이 특별상을 수상한 44회 베를린 영화제·임재철

118 가요/우리 가요계에 상륙준비를 하는 일본의 속셈·지명길

120 연극/연극의 상업광고 시대·이영미

122 공연/서울 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가씨와 건달들」·이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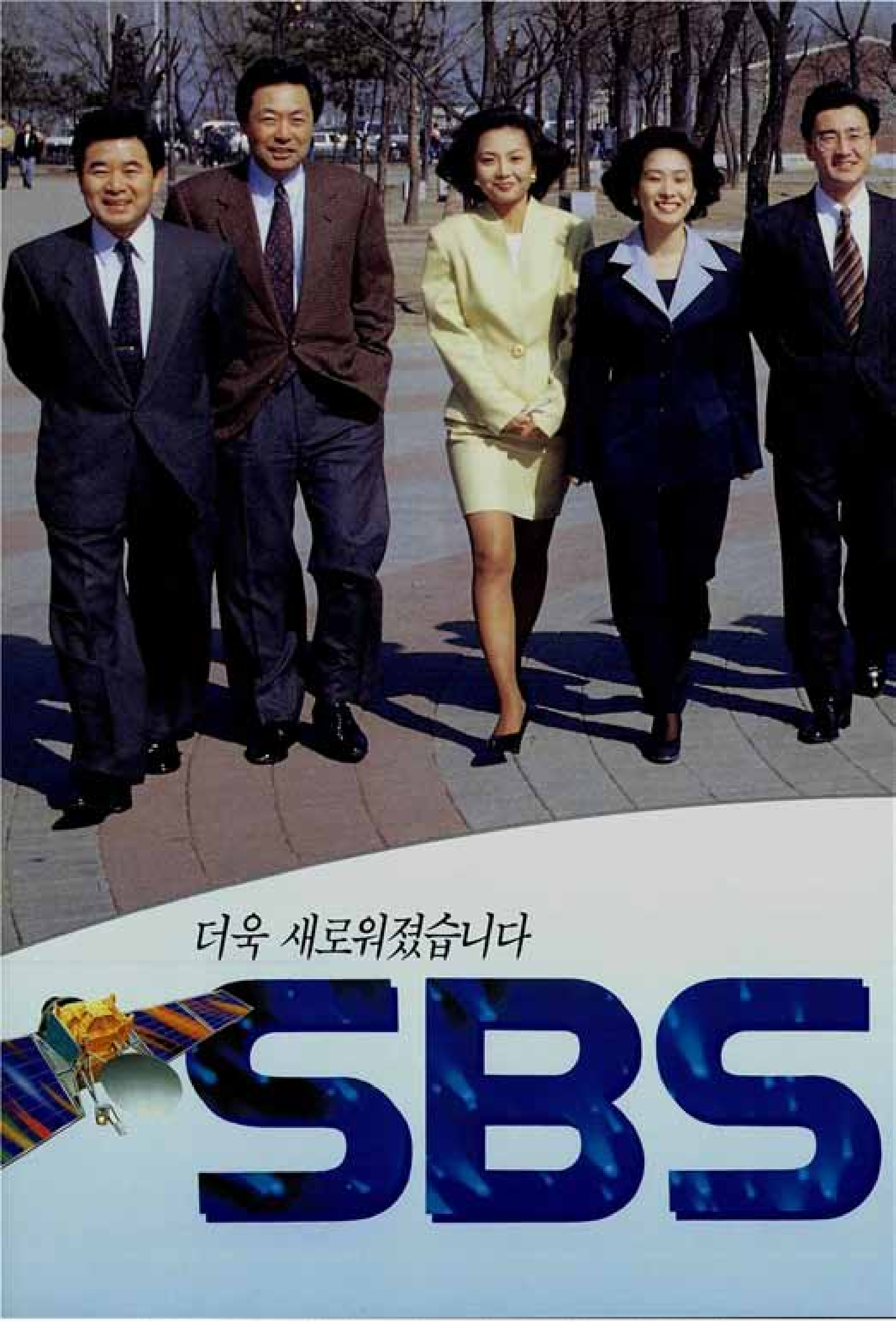
124 광고/'한국적인 것'을 소재로 하는 광고 제작 붐·임인규

126 이달의 「SBS 영화특급」

「세남자 세여자」

「신세대 전원집합」

프로듀서의 세계 [1] 주일청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SBS

뉴스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사는
시청자들의 시사·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보도 기능을 더욱 강화한
SBS 뉴스가 시간을 연장하고
역동적인 화면 구성으로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SBS 뉴스

「SBS 8 뉴스」

월~금요일 저녁 8시~8시 45분

보다 수준높고 활기찬 뉴스의 보도를 위해 앵커는 앉아서 진행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맹형규 최영임 두 앵커가 서서 진행하며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뉴스 진행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보도의 깊이와 다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 한시간 빠른 「SBS 8 뉴스」의 신뢰감과 신속함을 높이고 있다.

주말 「SBS 8 뉴스」

토, 일요일 저녁 8시~8시 35분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난 한 주일의 뉴스를 정리해주고 다음 주의 뉴스를 전망해주는 주말 「SBS 8 뉴스」. 이승열 한수진 두 앵커가 한 주일 뉴스의 흐름을 그들의 젊은 감각으로 날카롭고 정확하게 짚어준다.

「SBS 수도권 뉴스」

월~금요일 8시 45분~50분

도시 생활에서 '정보'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SBS 8 뉴스」에 이어 5분 간 마련된 「SBS 수도권 뉴스」는 환경 건설 주택문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생활정보를 가지고 2월 28일부터 시청자의 안방을 찾아가고 있다. 이 「SBS 수도권 뉴스」는 보도국 전국부의 이선명 기자가 진행한다.

「SBS 뉴스라인」

월~토요일 아침 9시 40분~10시

아침의 「SBS 뉴스」가 보도국 문화과학부의 신우선 기자를 보강하여 「SBS 뉴스라인」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밤 사이에 들어온 뉴스를 종합하고 그날의 뉴스를 조망하는 「SBS 뉴스라인」은 이슈가 되는 현장에는 즉시 중계차가 출동하여 생생한 현장의 뉴스를 전하고, 주부들을 위한 생활정보를 대폭 강화했다.

「SBS 530 뉴스」

월~금요일 오후 5시 30분~45분

손석기 최영주 아나운서의 더블 체제를 구축하고 방송시간을 15분으로 확대 편성한 평일 오후의 「SBS 뉴스」는 「SBS 530 뉴스」로 강화되어 그날 하루에 일어난 뉴스들을 종합 압축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며 저녁 시간을 열어준다.

민충기·뉴욕 특파원

48년 경남 밀양에서 나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TBC, KBS를 거쳐 91년부터 SBS에서 일하고 있다. 베테랑 방송기자로 외길을 걸어온 그는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에 대한 정확하고 생생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할 각오로 2월 마지막날 현지로 떠났다.

친숙한 것 같아도 더 알아야할 나라, 미국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세계 최강국가로서 군림하는 미국. 최근 소련의 붕괴 이후 더욱 강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 미국에 관한 정보는 끝없이 많고, 이 나라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 혹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형국은 아닌지….

SBS가 뒤늦게 나마 뉴욕에 특파원을 두기로 했고 내가 첫 임무를 갖고 뉴욕에 가서 해야 할 일을 곰곰히 생각해본다. 우선 SBS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걱정이다.

미국은 우선 영토가 광대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공업화된 동부지방과 광활한 중부평원 그리고 신흥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대별되고 있다. 미국의 공업은 과연 사양길에 있는지, 캘리포니아 부(富)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지, 미국에 관해 궁금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 특파원 재임 기간 동안 이를 효과적으로 취재 보도할 생각이다.

그리고 UN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우리 나라가 가입한 이후부터는 비중이 부쩍 커진 UN의 움직임과 그로 비롯한 세계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취재해야 한다. 그러나 UN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의 비중이 커지면서 뉴욕 특파원의 일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로부터의 소식이고 보면 UN 취재 보도가 간단하지 만은 않을 듯 싶다.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그들의 실상을 취재해 볼 생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조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교민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미국 생활을 좀더 깊이 알아보고 본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물밀듯이 밀려갔고 미국에 있는 친척들을 부러워도 했건만 무슨 사정이 그리도 있길래 역이민을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취재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낼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본사에 있는 든든한 동료 선후배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뉴욕으로 떠난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떠나기 전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되돌아 볼 때 후회없는 시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 참이다. S

허원제·본 특파원

51년 부산에서 나서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78년 국제신문 기자로 출발하여 경향신문, KBS를 거친 그는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본에서 통일 이후 독일인들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세계 정세의 흐름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지난달 23일 출국했다.

'라인강의 기적'은 재현될 것인가?

94년 1월 하순 어느날 새벽 2시. 독일의 젖줄 라인강에 짙은 어둠이 깔려있지만, 강줄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화물운반선의 대열은 시차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방 창문을 통해 한동안 이를 바라보던 나에겐 흥미로운 모습이었다. 모두 잠든 시간에도 끊임없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독일의 대동맥 라인강. 불현듯 '라인강의 기적'이 지금도 독일에게 유효한가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독일의 초대 특파원으로 발령난 후의 현지 답사 과정에서 느낀 첫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통일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전 국민적인 고통 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단의 상황에서 이룬 서독민의 기적과도 같은 강대국으로서의 재건, 이 라인강의 기적이 과연 통일 독일이라는 또 다른 상황 아래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40여 년 동안의 공산 치하에서 근로의식이 피폐해진 동독 출신인과 동·서독의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 극심한 동독 지역의 오염 등, 강력한 서독의 경제력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들은 또 다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창출해낼 것이고 그것의 시발은 2000년대까지 완성한다는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있다고 보여진다. 베를린은 프로이센 이래로 강력한 독일 민족 정신의 상징적인 힘의 결집소였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게르만 민족 정신의 발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통일 독일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가든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본보기이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올해부터 시작된 통합 유럽의 발전은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나 우리 나라와의 무역 문제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통합 유럽의 경제적 위상에 있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은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를 지닌 국가이다. 독일의 현장에서 직접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하는데 초임 특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연중 기획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3

3부작 「메트로폴리스 점검」

미리 가본 앞서가는 도시의 내일

취재/이선명 정승민

촬영/김동선 김태현

방송/3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파리는 밤이 아름답다. 세느강을 따라 흐르는 에디뜨 피아프의 상송이 아름답고, 가난한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퐁네프의 다리가 아름답다. 몰리에르의 고전극이 상연되는 코미디 프랑세즈와 오페라하우스도 아름답지만, 가장 파리답다는 무랑루즈와 리오쇼도 아름답다. 30만 점의 미술품이 소장된 루부르박물관도 아름답지만, 가난했던 화가 고호와 모딜리아니가 걸던 몽마르뜨 언덕도 역시 아름답다. 나폴레옹의 기마병 말발굽 소리가 서려있는 샹제리제 거리도 아름답지만

'춘희의 거리'의 유혹도 또한 아름답다. 퐁피두센터의 젊음도 아름답지만, 진한 커피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담소하는 카페의 노부부도 아름답다.

파리의 수채화는 이렇듯 이방인에게는 모두 아름다움의 결정체로 보일 뿐이다. 하지만 파리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파리의 밤을 유심히 돌아보면 은은한 조명의 채색이 안개에 젖은 파리를 연상시킨다. 행인의 눈을 부시게 하는 직접 조명은 거의 없다. 천박한 삼원색의 값싼 조명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파리의 밤 조명은 은은한 파스텔톤의 간접 조명이 도시를 푸근한 삶의 휴식처로 단장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멀리는 예술과 낭만을 사랑하는 '파리지엔'의 성향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깝게는 파리의 밤을 위해 노력하는 파리시 당국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파리시는 파리의 밤을 위해서 별도로 조명만을 연구하는 특별 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명의 색감과 조도가 피사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명 각도

꿈의 도시를 현실화시키는 선진국의 움직임.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로 단장하는 런던 도크랜드(왼쪽 사진)의 모습이나, 예술의 도시 파리를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가꾸는 파리시의 야경(아래 사진)을 위한 정성어린 노력을, 그저 부러움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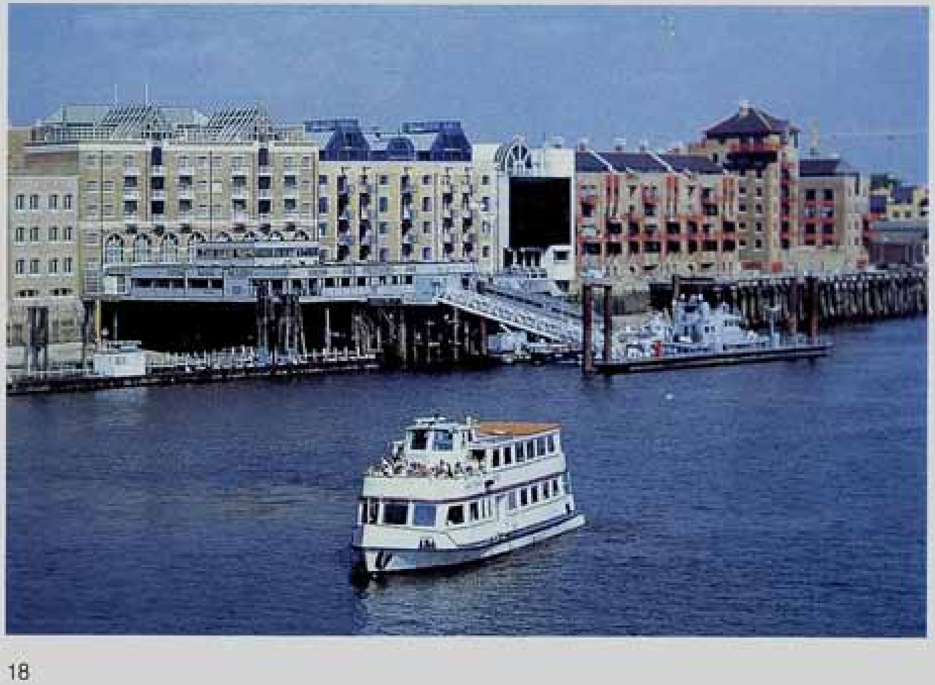
와 반사 조명이 만들어내는 피사체의 그림자까지 세밀하게 연구해 도시의 주요 건축물과 가로등에 적용시키고 있다.

폭우와 혹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조명기기를 제작할 뿐 아니라 조명기기의 예술적 모양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소의 노력은 가히 예술가의 정열을 엿보게 해준다. 남이 쉽게 알아주지 않는 곳에 쏟아부은 파리시의 정성, 그것은 도시를 가장 도시답게 만든 노력의 단면으로 매료시켰다. 파리시에 넘쳐있는 숱한 사랑과 낭만보다 이 작은 정성이 더욱 값지고 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도시는 과연 인간에게 무엇인가. 다가올 21세기 미래의 도시는 인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미래를 위해 도시를 어떻게 가꿔가야 하는가. 이러한 버거운 주제들을 안고 취재팀은 지난해 말 40여 일 동안 파리와 런던 그리고 도쿄 도심을 헤맸다. 관념의 모래성은 매일 밤마다 밀려오는 파도에 무너지고 이른 새벽 또 다시 정도 600년의 육중한 무게에 짓눌려 서울의 내일의 청사진을 그려보기를 여러날. 우리가 바닷가 모래밭에서 찾아낸 조가비같은 발견은 꿈과 개념이라는 두 단어였다.

파리, 런던, 도쿄에서는 한마디로 꿈이 있었다. 오래된 낡은 도시의 해묵은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21세기를 위해 옛도시의 기능과

대영제국의 찬란함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있는 이유는 이를 지키려는 영국인의 의지 때문이다. 인간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런던의 노력은 21세기의 또 다른 대영제국의 신화를 잉태하고 있다.



역할을 짊어질 거점, 배후 도시를 야심차게 육성시키려는 신선한 꿈이 있었다.

파리의 라 데팡스와 런던의 도크랜드 그리고 도쿄의 뉴텔리 포트타운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정보를 움켜쥘 광통신이 깔리고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 들어서고 세계인이 쉽게 드나들 공항이 인접해 있는가하면 옛도심과의 교통 연결 체계에도 세밀한 투자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첨단 기능이 주는 미래상이 꿈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진정한 꿈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편리한 기능만을 우선시한 정보와 교통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드는 정보휴머니즘 교통휴머니즘 사상이 기본 개념으로 깔려 있었다. 다시 말해 도시 발전의 방향이 인간 중심으로 뚜렷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재팀은 우리가 발견한 꿈과 개념을 다음과 같이 풍뚱그려 보았다.

1부 도시 활력의 실핏줄
— 대중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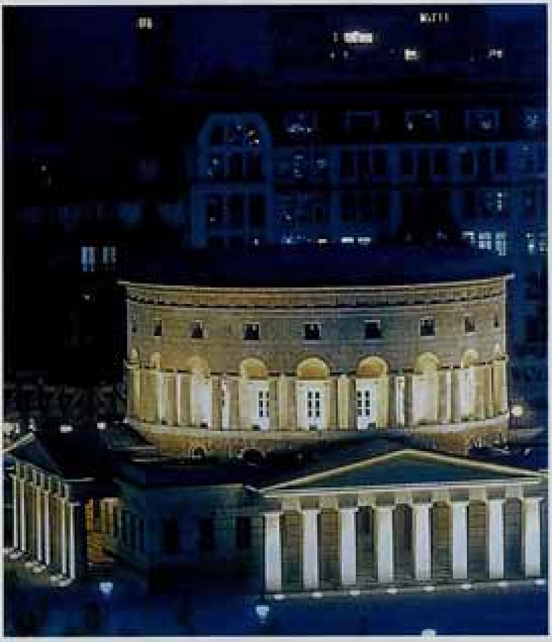
교통은 흐름이다.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각국 수도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이다. 교통 문제의 심각성과 실태는 어떤지 세 도시의 출근길의 교통 사정을 먼저 살펴보았다. 출근길 시민을 침실에서부터 직장 사무실까지 따라가보기도 하고, 멀미를 무릅쓰고 교통방송용 경비행기를 함께 타기도 했다.

선진국 수도의 공통점은 도로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도로의 활용도, 즉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다. 현재 시각의 교통 정보를 통행 지역별로 반복해서 알려주는가 하면, 원하는 교통 정보를 차안에서 컴퓨터로 찾아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도로 상황을 컴퓨터가 자동 측정해 즉각 알려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세계 각국마다 교통에 대한 신경통은 이젠 고질병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도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국 수도의 교통정보는 첨단의 정보기술을 이용,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사진은 일본의 시원하게 뚫린 도로.

2000년대를 질어지고 나갈 파리시의 야심작, 미래 도시 라 데팡스의 그랜드 아치(위 사진). 파리의 모습은 앞서가는 도시의 자신감, 바로 그것이다.

또한 완전 컴퓨터로 운행되는 런던 도크랜드의 무인경전철과 대륙을 넘나들며 출퇴근 이용으로 활용되는 경비행기 운영 실태 등 새로운 교통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특히 각종 교통 수단이 어떻게 서로 연계돼 이용되고 있는지 연결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2부 첨단 도시의 신경망 — 정보통신

정보는 힘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와 이웃의 동향을 알아내는 힘, 그 힘의 근원은 어떻게 형성되며 도시의 경쟁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 실태를 우리는 파리 시민의 가정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보았다. 40만 건의 정보가 축적돼 한 가족 모두가 정보를 유익하게 생활화하는 평범한 가정을 탐방한다. 또 10만원대의 값싼 무선전화기를 개발해 정보민주화를 이룩해낸 프랑스 텔레콤사의 Bi—Bop 전화기에 대해서도 처음 소개한다. 그리고 1,200만 도쿄 도민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쿄도청의 행정 전산망, 광통신으로 이뤄진 LAN체계, 그리고 지진과 화산 등 재난에 대비해 마련한 도쿄 고도의 방재시스템도 함께 소개한다.

이밖에 신용카드를 대체할 미래의 전자화폐(Mondex)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TV로 소개할 예정이다.

3부 미래 도시의 청사진 — 뉴타운 계획

국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도시들은 도시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

다. 각국은 지금 미래를 위해 새로운 거점의 배후 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꿈의 도시 파리라 데팡스와 쓰레기더미 위에 피어난 도쿄 뉴텔리 포트타운, 대영제국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런던 재건의 기치 아래 펼쳐지고 있는 도크랜드 재개발에 대해 소상히 소개한다.

특히 고령 사회를 앞두고 주거공간과 휴식공간, 위락공간의 조화를 중시한 도쿄의 다마뉴타운과 런던의 그린벨트 정책 그리고 문화공간의 중심부인 파리의 그랑루부르 계획 등을 각 도시의 화려한 경관과 함께 선보인다.

인간의 삶의 안식처이며 생활의 둥지이기도 한 도시는 그러나 그동안 무분별한 물리적 발전만을 거듭해 왔다. 그 속에서 인간은 어쩌면 도시로부터 버림받고, 갈수록 이질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도시는 인간이 시간을 초월해 매무새를 갖춰가야 할 공간이다. 그리고 자자손손 인간 자신을 위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정도 600년을 맞아 새삼 되돌아본 우리의 서울. 그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나. 그것은 꿈과 개념(concept)을 가진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작은 조언을 보태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

글/이선명·보도국 전국부 차장대우

런던의 내일을 짐작케 하는 공중에서 내려다본 런던의 도크랜드(사진). 이렇게 선진국의 미래 도시를 미리 가보며, 정도 600년을 맞는 서울의 청사진을 시청자와 함께 하나씩 그려보고자 한다.

연중 기획/「21세기 신한국의 선택」 4

3부작 「최전선의 한국인」
'열사의 땅'에 한국의 꿈을 심는 개척자

구성/박명성
연출/윤동혁
촬영/김형근
방송/3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 50분~10시 50분

전설의 뱃사람 신밧드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시바의 여왕도 마찬가지다. 오만 왕국에서 '여기가 신밧드의 고향'이란 말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이 정도는 무지(無知)도 아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흔히 '열사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요르단에서 파카를 걸치고 다니며 우리들의 무지를 신기해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아침 저녁으로 중동 뉴스를 접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중동에 대해서는 아프리

카보다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저는 캐나다에서 이리로 올 때 두루마리 화장지까지 준비했어요."

오만 왕국 한국대사관의 조대식 영사도 취재팀의 무지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좀 큰일이 아닌가? 세계화 국제화를 목메어 소리치고 있으면서도 그 넓고 자원 많고 사람도 많은 중동 땅덩어리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맹에 가깝지 않은가.

오만의 남부 사막지대 어느 조그만 마을 공중전화에 3리얄(한화로 7천원 가량)짜리 전화카드를 집어넣고 서울로 국제전화를 할 때는 낭패스럽기까지 했다. 3리얄짜리는 3분, 5리얄짜리는 5분간 사용할 수 있었다. 만약 오만 사람이 한국의 어느 시골마을에서 본국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면 상당한 불편과 함께 한국의 정보 통신능력에 회의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중동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한달 내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다.

1부, 아라비아의 함 부장

아라비아의 로렌스도 피터 오툴이 주연하는 바람에 외모가 멋있어졌지만 사실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한다. 금성사의 요르단지사장 함상헌 부장(37세)은 1미터 60센티미터쯤 된다. 그러나 테니스로 다져진 강건한 체력과 부리부리한 눈망울이 그의 작은 키를 상쇄한다.

함상헌 씨는 순수문학을 꿈꾼 영문과 출신으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생각도 안했으나 쿠웨

요르단 사르한 사막의 석유시추현장. 낮에는 내리 쬐는 태양과 전갈, 사막뱀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살벌한 자연환경과 과연 석유가 나는 것인가 하는 초조함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캐내고 있는 그들의 땀방울을 새삼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트 왕실 초청 연수생으로 중동 땅을 밟은 후 생각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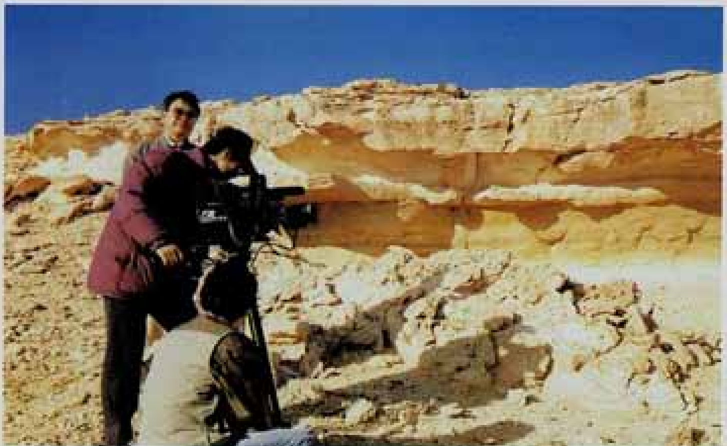
금성사 쿠웨이트지사에서 한참 신나게 일할 때 걸프전이 터져 식솔을 거느리고 육로로 몇날 몇밤 걸려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는 차가 멈출 때마다 수첩에 '출(出) 쿠웨이트기(記)'를 적고 또 적었다. 나중에 아들이 장성하면 수첩을 그대로 주려고 한 것인데 그때 강보에 싸여있던 아들이 지금은 컴퓨터 게임을 아빠보다 잘한다.

요르단 가전업계 60퍼센트 장악! 일본제 소니, 샤프, 내쇼날… 다 눌렀다. 요르단 산간벽지 어디를 가도 '골드스타'하면 통한다. 함 부장은 그 요인 몇 가지를 들었다. 요르단의 자존심을 살리는 광고 전략, 일본을 능가하는 애프터 서비스, 된장식 사원관리 등이다.

함 부장이 요르단에 와서 처음 한 일이 TV와 신문광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때 강조한 것이 '메이드 인 요르단(MADE IN JORDAN)'이었다.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부품이 모두 한국제라고 해도 굳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겉 뚜껑에 쓰인 글자는 별 의미가 없다. 함 부장의 세계화는 현지화, 토착화다. 요르단 사람들은 '메이드 인 요르단'이란 글자를 보고 흐뭇해 한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국 기술로 TV를 만들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참이다.

해피 콜(Happy Call)제도는 요르단 신문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골드스타 제품을 사간 고객에게 최소한 한달에 한번 꼴로 전화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24시간 안에 달려가서 고쳐주는 시스템이다. 아랍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입 선전'의 효과가 커서 이 해피

촬영팀의 고생도 무척 심했지만, 낯선 땅에서 모래 바람과 싸우며 한국의 꿈을 심는 그들의 강건함 앞에서는 표현하기 조차 미안했다.



홍제도는 어떤 TV광고보다도 더 막강하다. 그래서 지금은 TV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골드스타가 처음 '사원가족 위안의 밤'이란 행사를 치렀을 때도 그것이 신문기사가 되었다. 사원의 부모 형제까지 초청해서 노래자랑하고 행운권 추첨해서 TV, 냉장고를 선물로 주고…, 그런 일은 여태껏 요르단에서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금성사 공장에 입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자랑스러운 일로 그곳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함 부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점유율 60퍼센트 선에서 더이상 확장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추가 이윤은 고품질화,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사회 환원의 몫이다."

사회 환원이란 장애인돕기 마라톤 등에 기금을 내놓음으로써 골드스타의 이미지를 더 굳히겠다는 것이다. 언젠가 일본 가전업체가 대반격을 시도해도 절대 선두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함 부장의 각오이며 자존심이다.

2부, 사막 바다 그리고 용궁

요르단 동남부 사르한 사막. 사막길로 접어들어 9시간을 달렸다. 베두윈 안내인이 없으면 석유 시추 현장을 수십 번 왕래한 운전기사도 길을 잃기가 십상이다. 이따금 들개 떼가 차 뒤를 따라오며 컹컹 짖는다. 사막의 노을과 밤하늘의 별은 세상 어느 곳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아름답지만 현장의 한국인들은 삭막한 자연과 석유가 과연 나올 것이냐 하는 초조감으로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먼, 조금 측은한 모습이었다.

"혹시 라면 좀 가져왔습니까?"

그럴 줄 알고 부당요금을 감수하면서 라면 100봉지, 팩소주 50봉지를 가져오지 않았던가?(삼분의 일은 사막에서 삼분의 일은 원양어선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오만에서 풀었다)

사막에서는 모두 군화나 등산화를 신는다. 낮에는 전갈이나 사막뱀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추위때문이다. 사르한 석유 시추 현장에서 놀란 것은 60명 남짓한 국내·외 인력이 10여 개의 다국적 기업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공사의 궂은 일은 이집트 사람들이 맡고 있고 식당은 영국계 회사가, 청소는 요르단, 과학적인 분석은 프랑스 기술진이…, 이런 식이다.

재미있는 것은 30여 명의 이집트인 근로자들이 기름을 뒤집어쓰며 한달 내내 일하고 받는 총액이 시추기 임대료 포함해서 14만달러인데, 프랑스 슐럼버지회사 기술자 두 사람은 하루 일하고 10만달러(물론 첨단기자재 사용료가 포함되는 것이지만)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고부가치가 무엇인가를 사막에서 실감했다.

바다 위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아침 저녁으로 중동 뉴스를 접하며 살고,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도 자원 많고 사람도 많은 중동 땅 덩어리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맹에 가깝다. 중동 시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중동에 대해 계속 무관심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중동 지도를 다시 펼쳐보고, 중동 전문가를 키울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베트남 청년들을 만났다. 이십 년 전만 해도 선원수첩 받기가 별따기였는데 지금은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 조선족과 베트남인들을 승선시키고 있다. 기본급 250달러에 수당 합치면 300달러 선. 이십 몇 만원인데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선 줄을 서 있다.

한국 선원들은 선원 수입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호소했다. 도대체 생선은 식량도 아니고, 바다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눈밖에 있다고 사람 취급도 안해준다는 것이었다.

"21세기, 21세기 하는데 21세기에는 생선 안먹고 살 것이요? 우루과이라운드 농민 데모만 무섭고 어부들은 바지 저고린가?"

정부나 업계나 수산업을 너무 경시하는데 원양어업 포기하면 우리 어시장도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어선들이 잡은 생선들로 가득 찰 것이란 소리였다. 미국이나 일본이 왜 바다어장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요르단 계곡을 한국 기술자들은 '용궁'이라고 불렀다. 해발 마이너스 400미터니까 용궁도 아주 깊은 용궁이다.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고막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계곡을 내려가면서 그 푸르름에 놀랐다. 가게마다 과일과 야채가 지천이었다. 인근 여러 나라에 연간 2억달러 상당의 청과물을 수출하는데 거의가 이 계곡에서 나오는 물건이라고 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死海)에 이르는 이 광활한 땅이 황무지였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벌써 18년째가 됩니다. 저 계곡 땅속에는 우리가 깔아놓은 관개용 파이프 라인이 거미줄처럼 놓여 있지요."

박만수 소장은 사과만한 피망을 하나 따 보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느라 그동안 피와 땀을 쏟았다고 말했다.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기 때문에 보통 온도계(50도가 상한선)는 늘상 수은주가 꼭대기에 가 있고 새까맣게 몰려드는 파리는 아무리 막아도 입으로, 코로 들어가 파리를 밥과 함께 씹는 일이 예사라고 한다.

계곡의 한국 기술자들은 중동 평화회담이 정착되면 10여 년 전 이곳처럼 아직도 시뻘건 황무지인 웨스트 뱅크(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푸른 색으로

미나카부스항 근처의 오만 어시장. 전설의 뱃사람 신밧드를 연상케하는 독특한 복장의 인심좋은 오만 사람들. 어느 나라나 시장거리의 북적거림은 사람을 괜히 설레이게 한다.

바꾸어 놓겠다고 말했다.

3부, 다시 보는 중동 지도

UN의 이라크 봉쇄 조치가 빠르면 금년 말쯤 풀린다고 한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상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일본은 경제성을 들어 중동 시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현재 원유가 하락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다소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조만간 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현황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계속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상헌 부장은 중동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중동 전문가란 이예 중동에서 태어나 중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부터는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 아랍과 한국의 풍습을 다 깊이 알고 사랑해서 아침에 된장국, 점심은 햄버거, 저녁엔 양고기볶음을 먹는 사람, 물담배를 피우며 장사이야기를 하고 사막에서 별을 바라볼 줄 알며 때때로 지독한 외로움이 스며들 때 '나는 누구이며 나에게 모국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함 부장의 이야기는 중동 오딧세이이며 스타트랙 같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중동 지도를 다시 펼쳐봐야 하지 않겠는가. **S**

글/윤동혁·TV제작국 부장급 제작위원

사진/이재식·TV제작국

오만 마시라섬 근해에서 갈치잡이를 하는 한국 해외수산의 트롤선 배 위. 우리 나라에선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 중국 조선족과 베트남인을 승선시키고 있다.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진실

극본/서영명
연출/이근용
방송/3월 2일부터 매주 수, 목요일
밤 8시 50분~9시 45분

천지를 삼킬 듯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한 떼의 피난민들이 줄을 지어 남으로 향하고 있다. 추위와 굶주림에 찌든 이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고 있다. 남부여대(男負女戴; 가난한 사람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한 피난 행렬 사이에 떠밀리듯 움직이는 젊은 오누이가 있다. 누이동생은 눈에 띄게 배가 불러 있다.

갑자기 고막을 찢는 포성과 함께 가재 도구에 쌀가마까지 잔뜩 실은 소달구지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연이어 콩볶는 듯한 총성과 또 다시 울리는 포성. 매캐한 냄새의 포연 사이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온다. 포성이 울릴 때마다 갈갈이 찢긴 시체들이 널브러진다.

지난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변 「친애하는 기타 여러분」 후속의 SBS-TV 새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 제작진이 드라마의 도입부인 1·4후퇴 장면을 재연하고 있는 현장이다. 군사작전지역이라 헬리콥터를 띄우지는 못했지만 7미터 높이의 크레인과 대형 송풍기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되었고 폭파 장면을 위해 「머나먼 쏭바강」에서 특수효과를 맡았던 박광남 감독이 급파됐다. 이날 모인 엑스트라만 해도 300여 명. 기대했던 눈이 오

지 않는 바람에 눈보라를 만들기 위해 소금 200가마가 들었다.

유동근 전인화 부부가 함께 출연한다고 해서 캐스팅 당시부터 화제를 뿌려온 「이 남자가 사는 법」은 가시밭길에 내던져진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 어떤 종말을 맞는가를 더듬어봄으로써 삶의 참 의미를 일깨우는 정통 멜로드라마. 1·4후퇴 당시 누이동생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이 남자가 사는 법」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줄 박승부이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듯한 「이 남자가 사는 법」. 그 힘겹던 시절의 사랑과 미움, 그리고 질척한 삶의 내음이 중후한 연기자들의 노련한 연기 덕에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야기는 '바람찬 흥남부두'로 상징되는 1·4후퇴 장면부터 시작된다. 장준상(본명 장태식)과 태자 남매는 피난길에 폭격을 당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만 헤어지고 만다. 정혼한 남자의 아이를 혼자 낳은 태자는 충청남도 어느 해변가 간이주점에서 식모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뜨내기 사내에게 겁탈당해 밴 아이를 낳다가 사산하고 자신도 숨진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일곱살의 승부는, 사람은 대처로 나가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어머니의 유품인 염주를 품에 안은 채 무작정 길을 떠난다.

눈덮인 산속을 헤매던 승부는 동사 직전 사냥 나온 한 사장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지고 그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더부살이를 시작한다. 한 사장과 아들 세현은 승부를 친자식과 친형처럼 대하지만 안주인 정 여사는 하인과 다름없는 대접을 한다.

한편 준상은 피난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민정숙이 강영섭과 결혼하자 그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섭의 병원에 취직해 주변을 맴돈다. 바다 낚시를 떠난 준상과 영섭은 폭풍우를 만나 귀가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다. 먼저 차에서 빠져나온 준상은 살려달라는 영섭의 애원을 뿌리치고 차는 폭발하고 만다. 준상이 혼자 살아돌아오자 영섭의 어린 딸 수진은 준

상을 원망하고 아이의 말에 준상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낀다. 그날 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잠든 수진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영섭의 죽음으로 준상은 정숙과 재혼하고 병원까지 물려받는다.

정 여사의 비인간적인 대접에 견디다 못한 승부는 가출, 혼자 힘으로 의대를 마치고 시골 보건소의 소장으로 부임한다. 그곳에는 밝고 아름다운 처녀 도금옥이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도금옥은 바로 20여 년 전 누군가에 의해 자취를 감춰버린 영섭과 정숙의 딸 수진이었다. 승부와 금옥은 금새 친해져 앞날을 약속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

「이 남자가 사는 법」이 기대를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코믹드라마 「궁합이 맞습니다」와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를 잇따라 히트시켜 김수현 이후 가장 확실한 안타 제조기로 꼽히는 여류작가 서영명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꼭 한번 이런 드라마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초월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 말예요. 각기 다른 운명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 '업(業)'을 결부시켜 참된 삶의 가치관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작품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것이 은근히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시청률을 위해 작품성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그러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에 쫓겨 무거운 발걸음을 서둘렀던 1·4후퇴. 연이어 울리는 포성, 매캐한 냄새의 포연 사이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온다. 드라마의 도입부인 이 장면을 위해 300여 명의 엑스트라와 엄청난 장비가 동원되어 그날의 아픔을 재연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대작인 이 드라마는 문득 우리를 아득한 추억의 그 시절로 안내하는 역할에도 인색하지 않다. 금옥을 데려가 키우는 임여인 역의 남능미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모습은 마치 어린시절 시골집의 넉넉한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나 대본을 보면 작품 전편에 잔뜩 힘을 주고 당긴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 한번 본 시청자라면 좀처럼 TV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이면서도 서영명 특유의 '톡톡 튀는'대사가 간간이 섞여 있어 잔재미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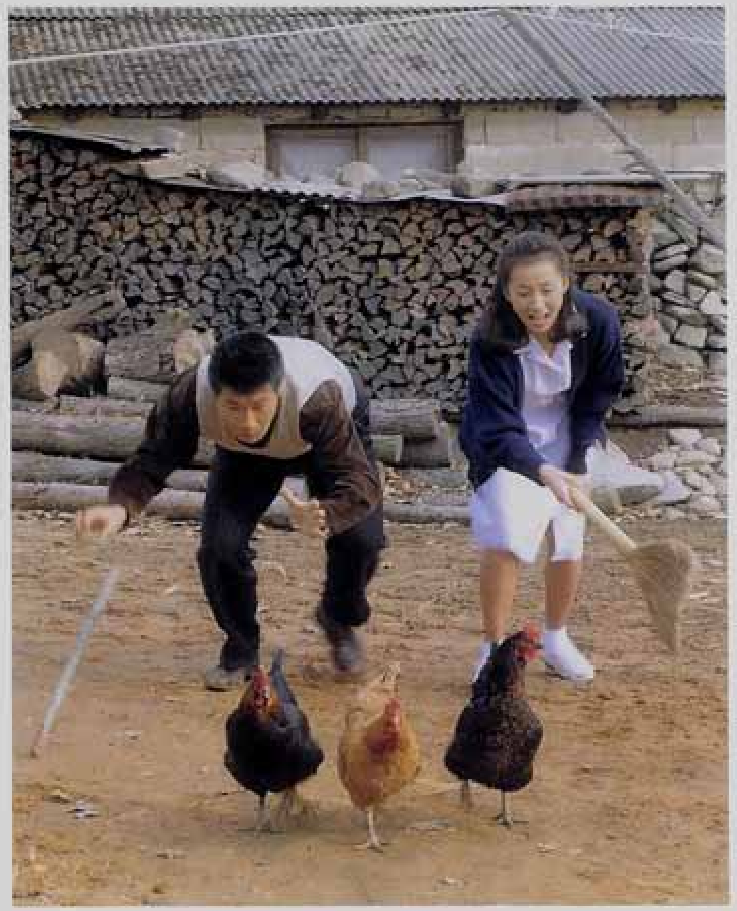
「고독의 문」「가을여자」 등의 아침드라마로 주부들의 눈물을 짜내던 이근용 감독도 모처럼 선이 굵은 이 작품을 대하고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촬영을 시작한 지난 2월 7일부터 제대로 자리펴고 눈 붙여본 적이 없을 만큼 20년의 연출 경력과 90킬로그램의 거구를 온통 이 작품에 쏟아붓는다.

"저 뿐만이 아니라 스태프 모두가 비장한 각오입니다. 우리 드라마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지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동시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지난날을 돌아봄으로써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51년 1·4후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대작이어서 스태프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야외촬영이 많아 장소 헌팅에서부터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50년대부터 60, 70, 80, 90년대의 소품을 각각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쁘다.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안면도를 비롯해 부안, 기장, 온양 민속마을, 전곡 등 전국을 누비며 쉴새없이 촬영을 해댔다. 특히 2월 18일 1·4후퇴 장면을 하루에 해치워버린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로 꼽히고 있다.

잉꼬부부로 소문난 유동근 전인화 커플은 극중에서는 180도 변신, 버리고 버림을 받는 비련의 연인으로 등장한다. 유동근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는 냉혈한 박승부 역을 맡았고 전인화는 한떨기 백합 같은 이미지의 청초한 여인 도금옥으로 열연한다.

3년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전인화는 사극과 현대극을 두루 오가며 차분하고 청순한 연기로 인기를 누려온 톱스타. 남편과 함께 하는 출연이라 오랫동안 망설였으나 작품과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남편의 격려도 큰 보탬이 됐다



오직 야망만을 꿈꾸는 냉철한 박승부 역의 유동근, 순수한 첫사랑을 보듬어 안는 비련의 도금옥 역에 전인화가 맡아 열연한다. 잉꼬부부로 알려진 두 사람이 「이 남자가 사는 법」에서는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을 맞는 연인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는 후문. 드라마 속에서는 연기자 대 연기자일 뿐이지만 막상 남편과 다투는 장면을 연기하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적잖게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고 있다.

온화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는 세현 역에는 영화와 드라마, 쇼 등 다방면에서 연기력과 진행 솜씨를 과시하고 있는 만능 재주꾼 홍학표가 캐스팅됐고, 무엇이든지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즉흥적 성격의 장수미 역에는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오현경이 발탁됐다. 이밖에 김세윤 박정수 정욱 선우용녀 남능미 등 중견 연기자들이 열연해 드라마를 탄탄하게 받쳐주며, 이미영과 송기윤이 코믹한 연기로 양념구실을 한다. S

글/이희용·세계일보 생활부 기자

사진/서창식

새 프로그램

일요 아침드라마 「질주」

오늘을 사는 맹렬 여성의 미래 가꾸기

극본/김혜정

연출/온형옥

방송/2월 27일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 9시~10시

직장 여성들은 정말 고달프다. 가정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무슨 여자가 이래?"라는 소리를 듣고, 직장일에 소홀하면 "역시 여자란 별 수 없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멋지게 병행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까? 새봄을 맞이하며 선보이는 일요 아침드라마 「질주」는 현재 이런 고민에 빠져있거나 혹은 자기만의 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같지만 결국 이중으로 고생하게 될까봐 망설이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영국의 대처 전 수상같이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겠다는 수퍼우먼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여자도, 일상의 대소사로 고민하고 사랑에 고민하느라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나약한 여자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 그 진정한 자아상을 찾아보자는 것이 「질주」의 기획 의도인 것이다.

「질주」는 CI회사 '미래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다. 여기에는 각기 다른 네 명의 여자가 등장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먼저 주인공인 젊은 두 여자 문희서와 오정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딘 여성들의 상반된 두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영화「천국의 계단」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이아로가 마음 약한 문희서 역을 맡고,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가 자신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일 욕심 많고 당찬 오정은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어 두 사람의 연기 대결이 볼만하다.

문희서(이아로 분)는 미래로의 디자이너. 입사한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않은 모양이다. 실수하거나 상사로부터 문책당하면 어김없이 눈물부터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멋지게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일요 아침드라마 「질주」는 이런 고민에 빠져있거나, 자기만의 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 같지만 이중으로 고생할까봐 망설이는 여성들에게 CI회사 '미래로'의 네 명의 직장여성들이 그 해답을 풀어가는 지혜를 선사한다.

쏟아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의지하는 유약한 여성이다. 회서의 이런 모습은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신입사원 오정은(이영애 분)은 문회서와 상반되는 캐리어우먼. 강한 승부 근성을 가진 신세대 맹렬여성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한계점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여성해방론을 목청 높여 부르짖는다. 당연히 정은의 눈에 비친 회서의 나약한 모습은 못마땅하기만 하고 회서 또한 그런 정은의 태도에 주눅이 든다.

반면 또 다른 두 여자 박남경(권기선 분)과 이명주(권재희 분)는 미래로의 입사 동기생. 이명주는 임신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3년만에 재입사한 파트타임 주부사원인데 반해 박남경은 벌써 팀장이 되어 있다. 입사 동기지만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묘한 관계 때문에 둘 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영 어색하다.

박남경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다. 한마디로 '미래의 오정은' 같은 여자. 자신도 오정은에게서 어떤 동질의식을 느껴 아끼는 후배로 키운다.

3년의 공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명주는 사회적 위치를 착실히 다지고 있는 남경이 부럽다.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해야 할 땐 너무 괴로워 차라리 그만두고 싶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뎌낸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의 완벽한 조화는 아직도 풀어야할 어려운 숙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네 여자에겐 각각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여자를 힘들게 하는 남자, 여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자, 여자에게 관심조차 없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네 남자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남성상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할 인물들이다.

문회서의 애인 김성호(정하완 분)은 미래로의 거래처인 성원

마음 약하고 눈물 많은 문회서로 분한 이아로. 실수하거나 상사로부터 문책을 당하면 눈물부터 쏟아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의지하는 유약한 여성이다.

그룹의 직원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희서가 자신 앞에서 회사일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성호는 여자의 사회 생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애인이 '직장여성티'를 내는 것은 못 참는 보수적인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성호의 태도때문에 희서는 일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한다.

반면 오정은의 마음을 빼앗은 남자 송 과장(김성일 분)은 여자에겐 관심조차 없는 인물. '여자라고 해서 먼저 프로포즈 하지 말라는 법 없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정은은 송 과장을 만날 기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냉정하고 샤프한 성격의 송 과장도 만만찮은 인물이라는 게 문제다. 한편 정은의 직장 선배 윤지훈(윤철형 분)은 이런 오정은이 좋다. 명주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힘들어 할 때 힘이 되어 주기도 하는 이 남자는 사랑 표현에 서툴러 고민이다. 아무튼 송 과장과 정은, 정은과 윤지훈 이들의 삼각관계는 극에 또 다른 재미

아직 철이 조금 덜든(?) 시어머니(장미자 분)와 아내가 수퍼우먼인 줄 착각하고 사는 남편(맹상훈 분)의 틈바구니에서도 자기 일을 찾고 싶어하는 이명주(권재희 분)는 맞벌이 부부의 아내 입장을 대변한다.

를 더해 줄 것이다.

이명주의 남편 강동규(맹상훈 분)는 신문기자다. 직업으로 봐선 가장 진보적일 것 같지만 정작은 보수적인 남자. 자기 부인이 수퍼우먼인 줄 착각하고 사는 현대 남편들의 전형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명주는 겉다르고 속다른 남편 때문에 이중으로 힘들지만 곧 현명한 대책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마지막 네번째 남자는 아직 미지수다. 박남경은 지금까지 연애같은 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가도 생기는 것. 언제 어디서 이 노처녀를 구제해줄 남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더군다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데….

사실 「질주」는 코믹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장 부장과 손 여사. 장 부장(강인덕 분)은 미래로의 짠돌이 관리부장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잔소리하기'가 취미인 사람이다. 싫거나 곤란해도 "우째 이런 일이?". 기분이 좋아도 "우째 이런 일이?"를 버릇처럼 뇌이면서 엉뚱한 일을 벌려 자주 웃음을 자아낸다.

또 명주의 시어머니 손진순(장미자 분)여사도 재미있는 인물. 활달하고 개방적인 성격에 아직도 공들여 화장을 하는 극성과 할머니이다. 서예학원 김 노인과의 짓궂은 연애로 장안의 관심을 모을 것 같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질주」같은 드라마의 출연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남녀평등을 굳이 소리 높여 부르짖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드라마인 탓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여성들이라고 해서 이 드라마의 시청자층이 여성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남성들이 봐야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나가는 현대 직장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강한 승부 근성을 가진 신세대 맹렬 여성, 오정은으로 분한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자신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일 욕심 많고, 여성의 불이익에 분노하는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일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노처녀 캐리어우먼 박남경(권기선 분)의 톡톡 튀는 성격과 경상도 사나이 장부장(강인덕 분)의 엉뚱한 행동은 직장인들에게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재미도 안겨줄 것이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질주」는 불륜을 배제한 여성드라마, 불필요한 코믹 요소를 제거한 일요드라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여주는 아침드라마입니다. 남들 안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모한 듯 느껴지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세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일요일 아침 늦잠에 빠져있을 시청자들을 신선한 충격으로 깨워보겠습니다."

온형옥 감독이 밝히는 연출의 도이다. 제목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동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질주」로 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이제 일요일이라고 마냥 늘어져 있을 일이 아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질주」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첨단 CI 회사 '미래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월요일엔 좀 더 앞서있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 같다. S

글/박석주·자유기고가

사진/신동준

새 프로그램

아침 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풀꽃 같은 여자가 그리는 고운 사랑

원작/임선영
극본/김혜수
연출/김재순
방송/2월 14일부터 매주 월~토요일
아침 8시 15분~45분

"눈 높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고 사랑을 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행복일 겁니다. 그러나 과연 행, 불행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행복하고 싶어요」의 윤희를 보면 그보다 불행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가난때문에 시집에서 내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이혼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른 윤희는 사실 누가 봐도 불행한 여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윤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낍니다."

부잣집 외아들인 오강훈(홍요섭 분)은 자신만만하고 열정적인 성격이다. 그런 그에게 고운 아침 햇살 같은 여자 운희(김혜선 분)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운희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강훈은 결과적으로 운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장본인이다.

「울 밑에 선 봉선화」로 공전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SBS로 적을 옮겨서는 생뚱하게 코믹 드라마 「댁의 남편은 어떻습니까」로 새로운 장르 개척에도 성공한 김재순 감독의 표정은 사뭇 긴장되어 있었다. 이제 막 빚어 해말간 얼굴을 드러낸 그의 창조물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다.

욕망의 해방구를 찾아 너나 없이 떠나버린 지금 진실의 부재를 깨우치러 온 운희는 과연 누구일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항상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이 고운 햇살처럼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운희는 오직 따스함 하나로 짙게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는 청아한 아침 햇살 같은 여자다. 또 시를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며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여자다. 남들이 혀를 차며 동정하는 자신의 불행을 정작 그녀는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는 여자. 그녀가 바로 운희인 것이다.

햇살 같은 여자, 운희는 김혜선이 맡았다. 「친애하는 기타 여러분」에서 다방 마담으로 변신하여 끼를 마음껏 과시한 김혜선은 운희를 만나 무척 기쁜 모습이었다.

"늘 해보고 싶던 역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운희 같은 여자는 고리타분하고 매력없어 보일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어떤 소명의식까지 느끼게 돼요."

운희를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주는 상대역 허필재로는 나한일이 나온다. 운희의 고교 은사이자 후

견인인 허필재는 운희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그녀를 후배인 오강훈에게 빼앗기게 된다. 어린시절부터 그를 짓눌러온 가난이란 질곡 속으로 운희까지 끌어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역시 필재에게 자신의 가족들까지 부담지울 수 없다는 운희의 생각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처럼 가로 놓인다.

그러나 운희를 후배에게 빼앗기는 쓰라림을 겪으면서도 운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순애보적인 필재. 섬마을의 국어 선생이며 시인인 필재로 분한 나한일 역시 필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무풍지대」의 나한일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화가, 시인, 작가같은 감성적인 역도 많이 했었습니다. 「무풍지대」의 이미지가 싫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기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는 연극만 하면서 쉬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것이 바로 허필재입니다. 인스턴트식 사랑이 팽배한 요즈음, 사랑의 가치를 믿는 허필재로 강팍해진 사람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고 싶습니다."

운희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운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오강훈. 깨끗하고 준수한 외모에 부잣집 외아들인

운희의 고교 은사이자,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주는 허필재(나한일 분). 운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순애보적인 필재의 모습은 인스턴트식 사랑이 팽배한 요즈음 깊이 있는 감동으로 가슴을 적실 것이다.

강훈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열정적인 성격이다. 그런 그에게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운희는 강훈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초라한 옷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운희가 어떤 가문의 여자보다 더욱 기품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녀가 선배의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훈은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끌리듯 운희에게 다가간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강훈은 운희로 인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수전노에 가까운 강훈의 아버지 오병택은 운희의 가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끝내 운희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는 오병택은 운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범죄인으로 만들어 강훈 몰래 이혼까지 시켜 버린다.

한 여인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강훈은 홍요섭이 맡았다. 어딘지 모성애를 자극하는 정적인 이미지의 연기를 주로 해온 홍요섭에게 강훈의 이미지는 좀 낯설어 보였다. 그러나 홍요섭은 강훈의 캐릭터에 매료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강훈의 비어있는 마음이 좋습니다. 한때 물질적 자극을 좇아 살기도 했지만 그것은 집안 환경에 대한 저항의 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실은 심성이 맑고 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허한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은 강훈의 비어있는 마음때문에 사랑의 진실을 깨달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김재순 프로듀서는 나한일과 홍요섭의 캐스팅에 대만족이었다.

"첫 주문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배역이 나오면 '아! 누구 하는 식의 캐스팅에 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려는 모험심과 탐구력이 있어야 작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연출자와 연기자가 한 마음이 되어 새로운 인물을 찾아 떠날 때 그 여행은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주인공에게 대만족입니다."

그외 오강훈의 아버지 오병택에는 백일섭이 캐스팅됐는데, 일자무식으로 자수성가한 섬마을 지주로 자식 사랑은 지극하지만 운희와의 결혼에 실망하자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는 비정함도 갖고 있다. 지난 시절 서민들의 아버지로 부각된 백일섭은 또 다른 전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노름으로 망해버려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온 운희의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순수

가난한 집안 살림을 운희에게 의지하며 꾸려가는 운희 어머니(김민정 분)와 가족들.
생활력이 없어 딸에게 기대 살다가 나중에는 사기를 당해 결국 그 일로 딸 운희가 교도소까지 가게되는 불행을 겪는다.

하고 밝은 성품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력이 없어 딸에게 기대 살다가 나중에는 사기를 당하고 결국 그 일로 해서 윤회가 교도소까지 가게 만든다. 윤회의 어머니는 그동안 도시적이고 개성적인 연기를 주로 해왔던 김민정이 시골 아낙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행복하고 싶어요」는 섬마을이 배경이다. 저녁 노을이 짙게 깔린 섬의 해안과 들녘을 도시락 가방을 맨 윤회가 자전거와 연락선을 갈아타며 출퇴근하는 모습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윤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경이다.

소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도 푸근한 섬마을의 인심과 스승 허필재의 사랑으로 힘거운 줄 모르던 윤회에게 운명처럼 강훈이 나타난다. 짧은 입맞춤 외에 아무 것도 기약할 수 없는 필재와의 사이에 강훈은 폭풍처럼 강렬하게 윤회를 뒤흔든다.

그리고 윤회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연처럼 엮어지는 필재의 부재와 강훈의 도움은 윤회를 강훈에게 밀어붙인다. 돈에 대한 믿음 하나로 지탱해온 오병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오병택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리며 두 사람을 시련으로 몰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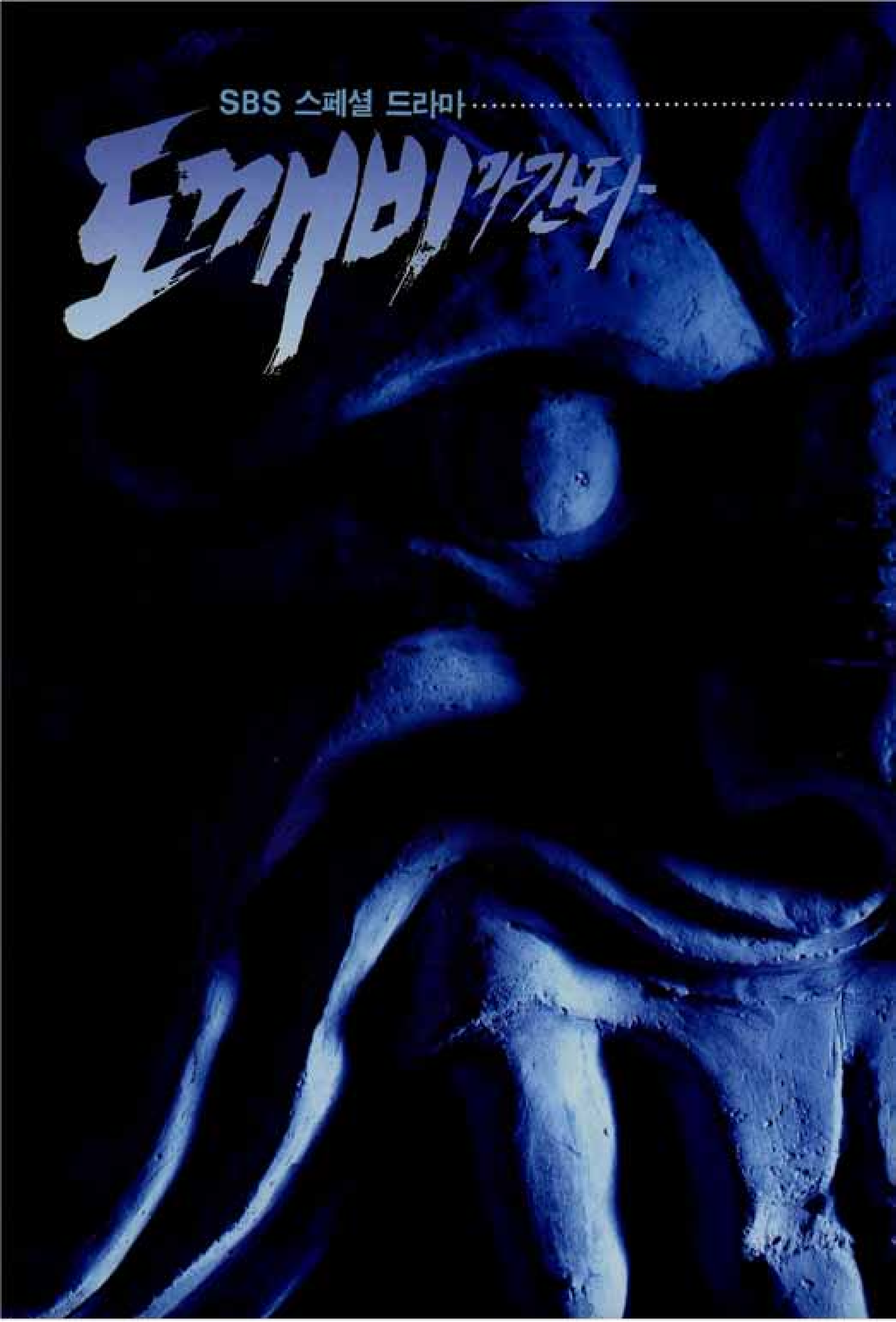
와중에 섬마을에 불어닥친 개발바람에 편승한 동생 윤섭의 폭행 사건은 윤회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하고 기회를 노리던 오병택은 윤회와 강훈을 강제적으로 이혼시켜 버린다. 아름다운 심성을 지키며 살던 윤회에게 이혼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교도소에서 낳은 아이는 다시 한번 윤회에게 희망이 되어준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필재의 사랑은 윤회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윤회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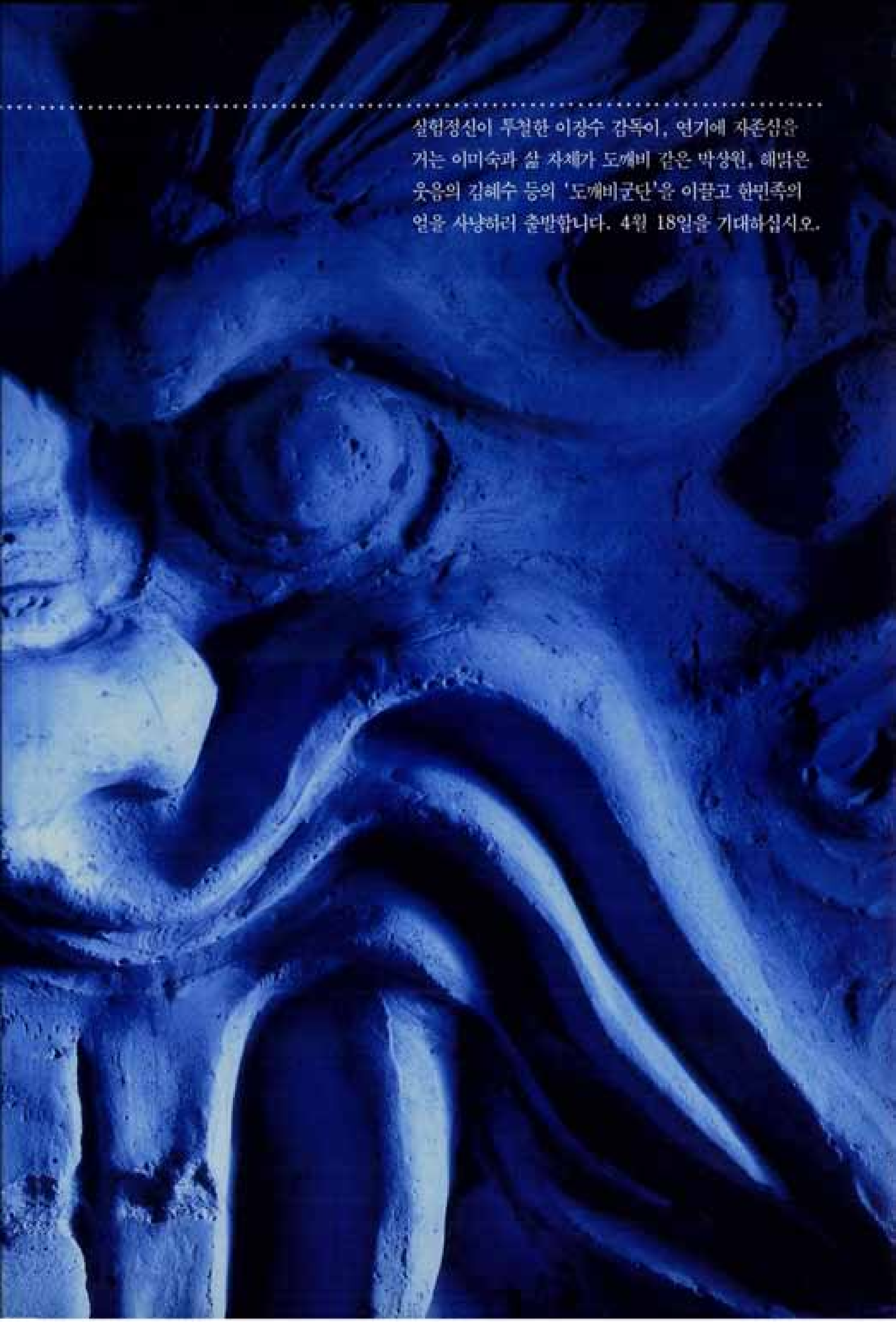
드라마의 시청률은 제작 현장에서부터 예감할 수 있다. 작가가 집필을 하면서 신바람을 느끼고 연출가와 연기자들이 몰아의 경지에 이를 때, 제작진은 자신들의 기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행복하고 싶어요」의 제작진은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 S

글/이성아·소설가

사진/정문경

파란만장한 굴곡의 삶 속에서도 고운 심성을 지키며 사는 윤회와 그의 상처를 감싸안아주는 필재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진실 부재의 요즘 세상을 향해 눈높이 행복의 참의미를 전달하겠다는 제작진과 연기자들은 그들 먼저 행복한 마음에 젖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SBS 스페셜 드라마
도깨비가 간다


실험정신이 투철한 이장수 감독이, 연기에 자존심을
거는 이미숙과 삶 자체가 도깨비 같은 박상원, 해맑은
웃음의 김혜수 등의 '도깨비군단'을 이끌고 한민족의
얼을 사냥하러 출발합니다. 4월 18일을 기대하십시오.

화제의 코너

「열려라! 웃음천국」의 '천국 동화'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꼬집어주는 세태풍자

연출/정환식

방송/매주 일요일 저녁 5시 55분~7시

웃고 살면 건강에 좋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세상에 웃음처럼 만병통치약이 없고 장수비결이 없다는 것쯤은 다 아는 얘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일로일로 일소일소'(一怒一老 一笑一少; 한번 성내면 한번 늙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한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살기 바빠서 웃을 새가 없고 시험 준비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웃을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웃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래저래 웃음을 잃어 버리고 산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신선

하상훈

가장 어린이다운 것이 가장 어른스러운 것이다. '천국 동화'의 동요 리듬과 주절대는 대사 그리고 특유의 몸결춤을 보며 마냥 웃다가도 한 순간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곰곰히 곱씹어본다.

하고도 밝은 웃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가 있으니 바로 「열려라! 웃음천국」이다.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 사회에 '웃음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일념하에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웃기는 그야말로 웃기는 프로다.

많은 코너들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화제성 있게 웃기는 코너가 바로 '천국 동화'라는 코너이다. 중견 개그맨 하상훈을 팀장으로 신인 개그맨 김지선, 정은숙, 정선희 등이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코미디다. 구성에다가 간단한 동요성 리듬, 그리고 요절복통 댄싱—이름하여 몸결춤—이 어우러진, 듣기에도 단순하고 보기에도 단순한 신세대 단순 코미디라고 억지 분류를 할 수 있다.

'천국 동화'의 특징은 기성 사회의 삐딱한 부분들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동화라는 형식을 빌어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이다. 굳이 세태풍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코너를 보고 낄낄대고 웃은 시청자라면 웃음 뒤에 전달되는 그 무엇인가도 빼놓지 않고 받았으리라고 본다.

「배꼽」의 저자 라즈니쉬가 우화를 통해 인간에게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한다면 너무나도 친숙한 동화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돌아보는 삶을 제시하는 하상훈과 그 일당(?)이야말로 한국판 라즈니쉬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지선

하상훈을 선봉장으로 김지선, 정선희, 정은숙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연습해서 고작 오분 방송하는게 너무 허탈하지만, 코흘리게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청자층을 가지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대사로) 옛날 옛날에 쏘가리 한 마리가 노상방뇨로 잡혀 갔더래/(노래로) 벌금 삼만원 잘 받았다야 쌤통이다야/(대사로)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노래로) 간이 부었네 간이 부었네 간이 부었네/(대사로)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노래로)그냥 불을래, 맞고 불을래 콩밥 먹을래/(대사로)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했대/(노래로) 막 살았구나 개판이구나 살판났구나/(대사로)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맞는 장사잖소?/(노래로) 수지맞든지 거덜나든지 깡통차든지/(대사로) 음주운전 뿌리뽑아 선진조국 창조하자

이 코너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은 웃기는 건 좋지만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오분 방송하는게 너무 허탈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코흘리게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시청자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이 '천국 동화'야말로 생활에 응

정선희

정은숙

용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출근하는 아빠가 엄마에게 "다녀오리다 회사간다야 저녁에 보자야" 그러면 엄마는 "일찍 와라야 술 끊어라야 수고하라야"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그냥 말하면 쑥스럽지만 "사랑한다야 같이 살자야 결혼하자야"하면 덜 쑥스러울 거고 또 거절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꿈 깨라야 임자있다야 딴 데 가서 알아보라야"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생활이 좀더 '웃음토피아'에 접근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천국에는 과연 동화가 있을까? 만약에 천국이 있고 그 속에 동화가 있다면 분명히 '천국 동화'같은 형식일 것이다. 요즘 코미디를 보면서 질이 낮느니 정신 연령이 낮아진다느니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 동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코미디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웃음이라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이 '천국 동화'는 더 잘 이해되어지고 즐겁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코너가 될 것이다. 그들이 신나게 추는 물결춤을 따라해보면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짧은 웃음 긴 재미에 많은 기대를 건다. **S**

글/최용욱·방송작가
사진/서창식

코미디는 우리 생활에 웃음이라는 활력소를 선사한다. 신나게 물결춤을 추며 노래하는 천진무구한 네 명의 어린이(?)의 짧은 웃음과 긴 재미가 담긴 '천국 동화'는 활력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새 얼굴

「공룡선생」의 제2기 '공룡군단'
싱그러움을 가득 싣고 남녀공학으로 새 출발

하루하루 쫓기며 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흐뭇한 시절이 있다.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 싸움판에 엉켜 훈육부에 끌려가도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던 시절. 미분 적분 시간에 엎드려 자더라도 옆구리엔 항상 인생의 고뇌와 철학을 끼고 다니고, 등교길에 지각하면서 뛰지 않는다고 건방지다는 선생님의 호통을 수없이 들어야 했던 시절.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순수한 적이 없었던 시간들이 바로 '고교시절'이다. 그리고 그 시절 숱한 고민과 방황

의 먼 발치에는 신뢰와 이해심이 가득한 인자한 얼굴로 조용히 웃고 서 계시는 선생님이 있다.

그동안 고교생들의 좌절과 눈물, 우정과 사랑, 도전과 시련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북돋고 안아주던 '공룡선생'은 얼마전 정들었던 제자들을 사회와 대학으로 떠나보냈다. 그리고 신학기부터는 거칠고 투박한 남학생과 한없이 여리고 순진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학생이 공존하는 남녀공학으로 부임하게 된다.

일년이 아니라 한달, 하루가 다르다는 신세대. 이제 그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따위의 촌스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환풍기가 달린 교실에서 거리낌없이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배꼽 밑에 어벙벙하게 걸쳐 입은 바지를 개성 패션이라고 여기는 신세대 고등학생들의 자기 주장은 거침없고 당당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별의 아쉬움도 잠깐. 「공룡선생」은 새롭게 만난 고교 신세대들 때문에 벌써 분주해진 눈치다.

연출자 장기홍은 알 것은 다 알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동시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요즈음 고교생들을

얼마전 정들었던 제자들을 사회와 대학으로 떠나보냈던 '공룡선생'이 신학기부터는 거칠고 투박한 남학생들과 여리고 순진한 사랑스런 여학생들이 공존하는 남녀공학으로 부임한다. 이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민과 꿈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안아줄 공룡선생의 사랑을 기대해본다.

이의정
76년생, 「궁합이 맞습니다」 등 드라마에 출연하여 이미 시청자에게는 낯익은 얼굴. 극중에서는 솔직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이 아름다운 소녀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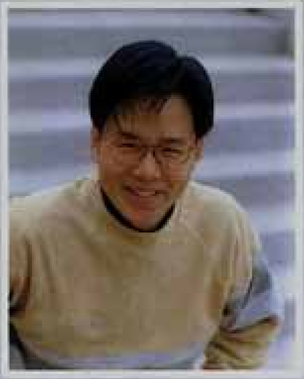
한마디로 '이해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세대이면서도 부단히 자신과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세대라고 덧붙인다.

새로워진 「공룡선생」에서는 거칠고 무모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나서는 그들의 진지한 생활을 남녀공학의 고등학교 생활과 그 기숙사 생활을 통해 소박하고 예쁘게 그려본다. 특히 새 단장한 「공룡선생」에서는 사춘기 남녀 고등학생들의 단체 기숙사 생활을 통해, 개인 중심적이고 의타심이 강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단체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 나가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새 공룡군단의 얼굴들도 재미있고 신선하다. 이름 모두를 연기자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젊은 세대들의 드라마다움을

손창준
73년생. CF모델로 활동. 극중에서는 이혼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또래보다는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냉소적이고 우울한 청소년으로 분한다.

김희선
77년생. 혜성여고 재학중. 「SBS 인기가요」 보조 MC로도 출연했던 재주꾼.
극중 성격은 생선장수의 셋째딸. 허세와 시샘이 많고, 그만한 나이에 가지는 비밀 또한 많다.



이광현
74년생. 극중에서 2학년 2반의 모범적인 반장으로 등장한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대만을 좇아 살아온 삶이 마치 대리 인생인 듯한 사실을 깨달아가며 고민한다.

느끼게 한다.

제2기 공룡군단 중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이의정, 김희선, 안연홍, 손창준 정도. 새로운 얼굴들이 만들어낼 무한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주요 배역의 면면을 살펴보자.

이의정, 활달하고 솔직한 의정이는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내숭과(科)인 희선이와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딪히는 사이. 하지만 비가 오면 말도 없고 다소곳해지는 로맨틱한 소녀이기도 하다.

김희선, '생선가게집 딸'이란 자신의 처지를 숨기며 생선냄새가 날까봐 항상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길 좋아하고 질투도 심한 그는 '타고난 외모'가 언제나 자랑이다. 희선이가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는 집도 부

안연홍
76년생. 계성여고 재학중. 「목소리를 낮춰요」에서 이미 알려진 학생 스타. 극중 성격은 모범생이면서도 가끔은 남을 놀리게 하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는 당돌, 앙큼, 내숭형.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인 새 공룡군단의 신선한 얼굴들이 기숙사 생활과 함께 펼쳐질 학창시절을 통해 또하나의 공룡신화를 만들어간다.

자인데다 공부도 잘 하는 연홍이. 하지만 자존심때문에 결코 드러낸 적은 없다.

안연홍, 부잣집 딸에 공부도 뒤떨어지는 법이 없어 반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정작 자신은 따분한 '모범생 놀이'가 지겹기만 하다. 공부벌레들이 두렵게만 생각하는 행동을 보란듯이 과감하게 저지르고 다니는 일명 내숭 오렌지족인 셈.

김효진, 약간 어벙하고 항상 한 박자 느린 탓에 '수푼(=푼수)'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지만 본인도 어느새 정이 들어있는 듯한다. 이들이 이제까지 공룡군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얼굴인 여고생들이다.

이들과 함께 2학년 2반 남자 공룡군단들도 모두 신선한 얼굴들이다. 이혼한 엄마와 둘이 살면서 나이에 비해 아픔과 고통을 너무 많이 치른 듯 어른스럽고 차분한 손창준. 가끔씩 느껴지는 싸늘한 냉소에서 아이들은 창준이의 힘겨움을 잠깐씩 엿볼 뿐이다. 이강현, 모범적인 반장. 하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대만을 좇아 살아온 삶이 마치 누군가의 대리 인생인 듯한 사실을 차츰 깨달아가며 고민한다.

정용준
76년생. 한영고 재학중. 극중 성격은 오락대장으로 꼽힐 정도로 춤과 노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두둑한 식당집 외동아들.

방재호
77년생. CF모델로 데뷔. 극중 성격은 통큰 사나이를 자처하며 큰 소리 뻥뻥치는 자칭 해결사. 정육점집 아들로 전형적인 개구쟁이 말썽꾼.

김효진
79년생. 동명여고 재학중. 극중 성격은 순진한 문수형. 열심히 노력하는데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

2학년 2반의 말썽꾸러기들인 방재호와 정용준. 용준이네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는 정육점집 재호는 언제나 말썽쟁이다. 장난의 주도자로 '의리'를 내세우지만 강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재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용준이는 부모가 떠받들어 키운 외동아들로 춤, 노래에 일가견을 보이며 오락시간을 책임진다.

3월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이 알미운(?)고교생들이 다니는 남녀공학에 부임한 공룡선생이 신세대 고교생들 삶 속에 뛰어들어 또 하나 '공룡의 신화'를 만들어갈 활약을 기대해본다. S

글/정은영·자유기고가
사진/신동준

초점

SBS－TV 드라마 「결혼」에서
세 자매가 보여주는 결혼의 척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물음

우리 사회를 '가치관 부재 상태'라고들 한다. 우리네 삶을 지탱해온 수많은 전통과 도덕규범은 근대화란 물결에 밀려 마치 박물관에 내버려진 전시품처럼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무질서함…. 그 심각성은 가치 보존의 최소 단위랄 수 있는 가정, 소위 '결혼'이라는 끈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집단에까지 예외없이 이어진다.

혼수품이 적다고 아내와 장모를 구타하는 사위, 신혼여행지에서 각기 따로 짐을 싸들고 돌아오는 신혼부부…. 신성해야 할 결혼이란 영역까지 어느샌가 물질만능주의와 자기중심의 편위주의가 점령해 버렸다. 결혼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이나 여성지를 오르내리고,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원죄의 굴레처럼 죄악시됐던 '이혼'이라는 딱지가 이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됐다.

이런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고민한다. 결

큰딸 지영(최명길 분)은 '사랑과 결혼이 전부'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은 10년 동안 지영이 소중히 지어놓은 유리성을 잔인하게 무너뜨려 버렸다.

혼이 과연 행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가? 결혼의 가치척도를 과연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런 원론적인 물음을 던져보지만 대답은 없다.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기란 너무 어렵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드라마 「결혼」으로 채널을 돌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숱한 화제와 논란 속에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드라마 「결혼」은 현실에 뒤섞여 있는 그많은 결혼관 중에서 세 가닥을 뚜렷이 드러내 대비시키고 있다.

지영 서영 채영이란 세 자매의 각기 다른 결혼관과 그에 따라 빚어지는 삶의 모습들은 대부분의 평범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너

무 극단적이다'싶은 구석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결혼』을 보며 공감하고 함께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는 '여자에게 결혼이란 과연 무엇인가'란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설정해놓고 이를 과감하리만치 정면돌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학자가 되리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무일푼의 청년 용식(임채무 분)을 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린 큰딸 지영(최명길 분)의 삶. 지영은 '사랑과 결혼이 전부'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상을 대변한다.

사랑 지상주의인 그는 집안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자살소동까지 벌이며 사랑을 택했다. 일을 버린 대신 결혼에 미래를 전부 걸었다. 남편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지영은 스스로가 설정해놓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완벽한 환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때론 인내와 의무로 받아들이며 결혼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남편 용식에게는 꽤 오래전에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들의 불륜관계는 10년 동안 지영이 소중히 지어놓은 유리성을 잔인하게 무너뜨려 버렸다.

지영은 사랑이라는 내적 조건만으로 결혼을 선택했고, 그의 삶 또한 결혼에 전부 내맡겼기 때문에 그것의 붕괴는 곧 지영의 인생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지영의 발버둥이 시작된다. 자신의 일을 찾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영은 그 절망에서의 탈출구를 새로이 나타난 남자(남성훈 분)와의 사랑에서

찾는다. 이 부분은 얼핏 생각하면 그렇고 그런 줄거리 중의 하나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그것은 한번의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서 다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랑 지상주의자 지영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송사 PD로 일하는 둘째딸 서영(조민수 분)은 보수적인 결혼관에 대한 일종의 극단적인 반작용이다. 그는 물질적인 조건을 결혼의 최대 가치로 여기는 어머니나 동생 채영은 물론, 사랑 제일주의인 언니 지영의 생각 둘다를 거부한다. 남자를 믿지 못해 결혼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서영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간 냄새'가 나는 기훈(이효정 분)을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다. 그는 언니 지영처럼 결혼때문에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동생 채영처럼 물질적인 조건때문에 결혼을 택하지도 않았다. 겉으론 일과 사랑을 동시에 성취한 셈이다. 그러나 서영의 생활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남편과 삐걱거린다.

방송사 PD로 일하는 둘째딸 서영(조민수 분)은 남자를 믿지 못해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인간 냄새가 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서영은 결혼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고 화해하는 공존의 논리를 배워나간다.

"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에 밥 대신 빵을 먹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재래시장에 가지 않고 쇼핑센터에 간 게 뭐가 잘못이냐" "밥은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자질구레한 불만이지만 사실 서영 부부의 갈등 또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결혼은 마냥 편하고 안락하기만 한 보금자리가 아니다. 20~30여 년 간 생각과 모양을 달리해온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고 화해하며 공존을 배워가는 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서영의 갈등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독불장군식으로 투쟁만을 해오며 공존의 논리를 상실한 여성 유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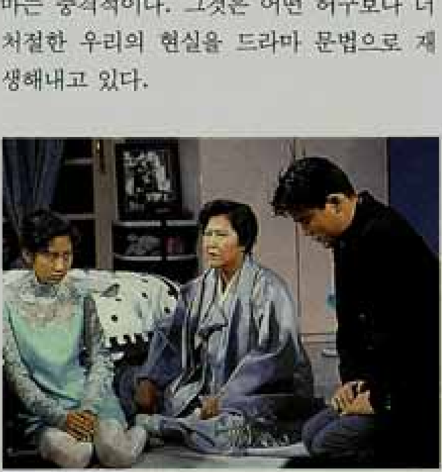
또다른 한계를 꼬집는다. 서영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과 재미를 눈앞에 놓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요즘 시청자들의 관심이 특히 쏠리고 있는 셋째딸 채영. 가난한 고시준비생 진호(윤동환 분)와의 사랑에서 '가난'이라는 문턱을 스스로 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랑을 깨어버린 채영은 물질적인 풍족이 주는 편리함에만 길들여져 있는 나약한 존재다.

채영은 큰언니 서영처럼 사랑에 대한 확신만으로 모든 벽을 뛰어넘거나, 그렇다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확고한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다. '공주병'에 걸려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 다시 말해 신데렐라 신드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채영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워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옛 연인 진호를 향해 비웃듯 내뱉고 돌아섰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며. 그렇게 선택한 부잣집 아들 현섭(김수안 분)과의 결혼생활은 그러나 신혼여행지에서의 첫날, 무너져버리고 만다. 이미 8년이나 사귄 여자를 신혼여행지까지 끌고 온 남편 현섭. '부'가 행복을 보장하리라는 환상으로 결혼에 달려들었던 채영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그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채영이 사랑으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상실했지만 대신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했다.

드라마「결혼」의 재미는 물론 이런 문제의식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세 자매 역을 맡은 탤런트 최명길 조민수 유호정은 각기 지영 서영 채영이라는 드라마 주인공들의 화신이라고 여겨질 만큼 딱 들어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캐스팅의 묘미를 십분 활용한데다 섬세한 심리묘사도 돋보인다. 게다가 음악으로 치면 스타카토처럼 톡톡 튀는 대사처리가 드라마의 제맛을 살려내면서 극이 신파조로 흐르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드라마 속의 지영 서영 채영은 사랑이라는 내적 조건과 물질이라는 외적 조건사이의 선택, 그리고 결혼이 여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기준에 따라 극명히 대조된다. 또 사랑이나 물질의 극단적인 환상에서 깨어진 뒤에도 그 환상의 파편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의 좌절과 무기력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충격적이다. 그것은 어떤 허구보다 더 처절한 우리의 현실을 드라마 문법으로 재생해내고 있다.



셋째딸 채영 (유호정 분)은 가난한 고시준비생과의 사랑을 뒤로 하고 부잣집 아들과 결혼한다. 하지만 신혼여행지까지 끌고온 남편의 옛 여자로 인해 '부(富)'가 행복을 보장하리라는 환상은 결혼 첫날부터 깨져버렸다.

이 드라마의 진짜 강점은 '이러저러해서 결국 결혼의 이상형은 이런 것이다'라고 단세포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한줄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현실 속의 결혼을 놓고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는 최소한의 모양 제시만을 할 뿐이다. 물질이든 사랑이든 환상만으로 달려드는 결혼에 대해 잔인한 심판을 내리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결혼의 의미를 곰곰 되새기게 하는, 세련된 '역설의 미학'을 펼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이다. S

글/김은영·자유기고가

사진/정문경

「출발 성공시대」의 '즐거운 직장 만들기'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는 솔직한 자리

AM STEREO
792KHz

"이런 말 방송에 나가면 나 면직되는데, 회사 이름 안 밝히죠? 제 이름 밝히지 말아요." 일단 다짐부터 받고 말을 시작한다.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후미진 뒷골목의 선술집이나 아니면 상사의 안테나를 교묘히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인들에게 느닷없이 들이댄 마이크는 물론 부담스러울 게다.

"절대 비밀 보장 할께요. 그렇게 곤란하시면 동료한테 들은 얘기를 하셔두 되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어김없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닌데요. 그 친구 과장이 좀 괴팍한데 그럴 때마다 아니꼽고 치사해서 회사구'뭐구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라고 서두를 시작한다. 그렇지만 어느새 언성을 높이고 침까지 튀겨가며 흥분을 한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간접 화법이었던 얘기

가 얼마쯤 지나면 슬그머니 직접 화법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 얘기란 말이다.

SBS 라디오 개국과 더불어 탄생했던 「출발 성공시대」는 아침 6시 10분부터 7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과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확실한 직장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출발 성공시대」를 통해 매일 7분 동안 청취자를 찾아가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직장 현장을 찾아가 상하간의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보는 대화 창구이자 조직생활 내에 쌓이기 쉬운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문고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코너다.

직장인들의 푸념은 직장내 직위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면 가장 고달프다는 말단 사원에서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은 물론이고 남녀 사원들의 대립 양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대할 수 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 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2, 3차까지 가는 것도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왜 꼭 폭탄주는 먹이는 겁니까. 그거 마시면 다음 날 괴로운데. 괜히 빼다간 말단이 건방지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정시 퇴근은 곧 폭탄주를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만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걸핏하면 할당 초과 달성이라느니, 판매 증대라니 하며 건배를 강요할 때는 진짜 피곤해요."

모처럼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 좀 하려해도 도무지 분위기가 안 잡혀서 정작 할 말은 못하고 구호만 외치고 말면 회식 자리가 그리

하루 24시간중에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들.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많다. 상사가 모르는 말단의 애환, 부하 직원이 모르는 상사의 갈등을 속시원히 털어놓는 시간이 「출발 성공시대」의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통해 마련된다.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사라고 할 말이 없지는 않다.

"도대체 요즘 사원들은 밥 한 번 같이 하려면 적어도 보름 전엔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직 내에서는 갑자기 회식이 마련될 수도 있는데, 데이트 약속이니 뭐니 그런 것을 이유로 상사가 보는 앞에서 그냥 퇴근해 버려요."

하긴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회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그 시절부터 '내 몸은 곧 회사의 재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일해왔던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요구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시 퇴근 정시 출근이에요. 우리 땐 꿈도 못꿨던 일입니다. 어쩌다 야근이라도 할라치면 모두 선약이 있다고 퇴근해 버리고 남은 사람이라는 게 과장이니 부장이니 하는 늙은이들 뿐이라구요."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신세대 직장인들은 '새마을 시대'나 통했던 말이라며 간단히 치부해버린다. 결국 이들 간의 갈등은 세세한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점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비단 상하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같은 부서 직원끼리 업무 협조상 남자 사원을 도울 때가 있거든요. 한번은 공짜론 안된다고 농담을 했더니 글쎄 '뽀뽀나 한번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 사원은 '그럼, 춤이나 추러가지'라며 능글맞게 웃기도 해요. 세상에 뱀을 봤어도 그만큼 소름끼치

얼핏 보면 불만만을 쏟아내게 해서 싸움을 붙이는 코너로 오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터놓고 얘기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폭을 줄여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작진의 바람이자, 보람이다.

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직장 여성의 이같은 푸념 속에서 남녀 사원 간의 갈등도 엿볼 수 있다.

어쩌다 립스틱을 좀 진하게 바르면 "쥐 잡아먹었어?"라고 빈정대는 남자 사원. 차 심부름까지 해주었더니 "어이, 옆에 앉지. 여자가 있어야 말할 맛이 더 나지"라고 말하는 상사. 거창한 여권운동에 앞서 직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직장 여성들의 얘기다.

한편 여자 사원의 푸념 못지 않게 남자 사원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한창 바쁜데 월말에 생리휴가 내고 며칠도 안지났는데 다음달 월초에 또 내는 여직원. 직장인지 패션쇼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미니 스커트 등의 복장으로 시선 둘 곳을 찾기 힘들게 하는 여직원. 아름다움도 좋지만 직장은 일터라는 인식을 한번 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자 사원들은 얘기한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얼핏 보면 불만만을 쏟아내게 해서 싸움을 붙이는 코너로 오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터놓고 얘기하게 함으로써 직장에서의 갈등의 폭을 줄여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듣고 부하 직원의 불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한 간부의 말도 들을 수 있었고, 말단이 모르는 상사의 고민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한 샐러리맨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고무적인 현상이 있고 보면 이런 날도 머지않아 오게 되지 않을까.

"이거 이런 말하면 나 승진될 텐데. 내 이름 나오죠? 회사 이름도 나와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요. 밥 많이 먹는 거 빼놓으면 따봉이에요!"

그래도 난 예외없이 비밀보장을 해야 할까? S

글/방성원·「출발 성공시대」리포터

사진/신동준

남녀 사원의 갈등도 상하 간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직장 동료로서의 예의를 갖춰달라는 여자 사원의 하소연도, '여자이니까'보다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져 달라는 남자 사원의 푸념도 모두 수용하고 귀기울여 보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는 직장인의 고통분담에 한몫을 하고 있다.

무지개 만들기

무지개의 끝은 어디일까?
그곳에는 행복이 있다는데.
무지개의 시작은 어디일까?
살수차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뿜어나오고
공중에 헬리콥터는 쉼없이 강풍을 일으킨다.
빨·주·노·초·파·남·보
하늘에는 영롱한 빛의 무지개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에 대한 반역 '무지개 만들기'의 끝에도
행복은 걸려있겠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따뜻하고 진솔한 일곱 빛깔 무지개를 담기 위한
뜨거운 몸짓이니까.

—「도깨비가 간다」 촬영 현장에서 —

사진/서창식

프로그램 탐험

월화드라마 「세남자 세여자」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든 젊음의 패기와 사랑

극본/박현주

연출/오세강

방송/매주 월, 화요일

밤 8시 50분~9시 45분

요즘 젊은이들은 도무지 그 특징을 뭐라고 뭉뚱그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X세대'라고들 부르곤 하는 모양이다. "나는 나일 뿐, 누구와 닮았다는 말은 듣기 싫다"가 그들의 한가지 공통된 정서랄까. 그야말로 개성 빼면 속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겠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엔 신세대란 낱말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세대 구별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잘살아 보세"를 외치기 급급한 판에. 그런데 세월 좋아진 요즘은 '신세대'는 물론 '세

계화' '국제화' 같은 단어가 시장 좌판에서까지 춤을 춘다. 이름하여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세상이 어찌나 정신없이 변하는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제가 아주 옛날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여서 인지(人智)의 변화 속도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빨라졌다. 구세대를 가리켜 자판을 꾹꾹 눌러가며 찍어대던 기존의 타이프라이터라고 친다면 요새 젊은이들은 가히 486 컴퓨터에 비유할 만하다.

이런 때에 즈음하여 우리는 바로 그 '요즘 젊은이들'을 텔레비전에서 만났다. 그것도 한꺼번에 여섯명 씩이나. 우정과 사랑, 세대차이 등으로 부딪치고 갈등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으로 이를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밝고 긍정적인 젊은이들의 이야기 「세남자 세여자」가 월요일과 화요일 밤에 텔레비전 화면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서로 확연히 다른 성장 과정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대조적인 개성 그들의 필연적인 만남, 그로부터 빚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다채로운 인물들이 우정과 사랑의 끈으로 얽혀 펼쳐내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팽팽하게 전개될 이 드

한창 잘나간다는 쟁쟁한 청춘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제작 「세남자와 세여자」를 이끌어나간다. 젊음 하나를 밑천 삼아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든 세남자의 좌충우돌식 인생 전개와 그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세여자의 사랑이 빠른 템포로 팽팽하게 펼쳐지는 부담없는 코믹 청춘 드라마를 만날 수 있다.

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은 실로 오랜만에 부담없는 코믹 청춘 드라마에 대한 목마름을 달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 새로운 월화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의 각기 뚜렷한 성격과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벌써부터 뭔가 심상찮게 펼쳐질 것 같은 즐거운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이를테면 카사노바 성향이 다분한 연애지상주의자(민재혁)와 사랑도 결혼도 뒷전인 출세지향형 야심가(장이도), 엄마 치마폭에서 자라난 탓에 여자를 보는 관점이 남다른 마마보이(양석준), 남녀의 차이란 종잇장 한 장 만큼도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는 극성과 현대 여성(차세란), 요즘 보기 드물게 순종적이어서 때로는 좀 푼수같아 보이기도 하는 청순가련형(오순정), 그리고 지식과 지성에 따라주지 않는 자신의 외모때문에 몸부림치는 컴플렉스 덩어리(도훈자)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질적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세남자 세여자」는 캐스팅이나 해프닝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한 청춘 드라마가 아닌 동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엮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경쾌하고 가볍게 말이죠."

그저 흔해빠진 청춘 군상의 연

분장에 유난히 정성(?)을 쏟는 왕만두 코의 도훈자(전혜진 분)와 극성파 맹렬여성 차세란(신애라 분) 등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이질적인 등장인물들의 얽키고 설키는 조화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준다.

애이야기가 아닌, 신세대의 특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로 꾸미겠다고 연출자 오세강은 밝히고 있다. 이미 이전에 화제의 아침드라마 「사랑의 조건」에서 손발을 맞춰 함께 능력을 인정받은 작가 박현주와 이번에 또 힘을 합쳐 '시청률의 보루'라는 명성을 재확인 시켜줄 참이다.

이미 방송되고 있는 「세남자 세여자」의 머릿부분을 본 이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터이지만 작가와 연출자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산을 머릿 속에 깔아둔 채 속도감 있는 구성을 선보임으로써 다음 진행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여섯명의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후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궁금함, 무슨 일인가 계속 벌어질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말이다. 시청자로 하여금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흡인력을 드라마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할 때, 일단 「세남자 세여자」는 '재미있는 드라마'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 드라마의 큰 특징 중의 하나, 그것은 바로 눈에 띄는 캐스팅이 아닐까 싶다. 바야흐로 텔레비전 연기자들의 자유출연제가 활짝 꽃이 핀 것을 여기서도 실감할 수 있는데 김찬우와 박진성, 이미연, 전혜진 등이 SBS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비롯,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이종원과 신애라가 여섯명의 주인공으로 분하고 있다. 이들 쟁쟁한 청춘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점수를 주고 볼 일이거니와 이들이 뿜어내는 연기에의 욕심으로 녹화가 진행되는 SBS 일산스튜디오는 매주 후끈하게 달궈지고 있다.

양석준 역의 김찬우와 장이도 역을 맡은 이종원은 각기 건강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몸 사리지 않는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창밖에는 태양이 빛났다」

전운, 김용림, 전원주, 장학수 등의 든든한 중견 연기자들의 노련한 연기력이 드라마를 더욱 탄탄하게 바쳐준다.

출세지향형 야심가 장이도로 분한 이종원과 어촌의 청순한 처녀로 분한 이미연의 사랑이 어떤 변수를 가질지도 자못 궁금하다.

이후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미연은 본래의 청순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등장해 인기회복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훈자의 상상은 시청자들을 포복절도하게 한다. 덕분에 상대역인 김찬우는 쉴임없이 변신하게 된다. 심지어 아름다운 두상(?)을 온천하에 공개하기도.

90년대형 미인이라고 꼽히는 신애라 역시 외모에 어울리는 통통 튀는 역을 맡아 그 발랄함이 더욱 빛나보이고, 그동안 주로 시대극이나 이념 드라마에서 고뇌하는 묵직한 역을 주로 맡아온 박진성이 이번에는 정반대 성격의 배역을 맡아 드디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며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세남자 세여자」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의외의 캐스팅은 추녀 도훈자 역의 전혜진이다. 석준을 좋아하지만 못생긴 외모때문에 냉대를 받고 절치부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여 그 앞에 나타나는 역할인데 극 전개상 중반부까지는 추녀 분장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탓에 그는 녹화날이면 제일 먼저 나와 특수분장을 받고 있다.

SBS 분장팀장 이학재가 직접 맡고 있는 전혜진 분장의 백미는 역시 그 왕만두만한 코에 있다. 분장하는 데만도 한 시간 씩이나 걸린다는 그 코는 요즘 「한명회」에 등장하는 이덕화의 당나귀 귀와 더불어 방송가의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다. 독특한 역할을 맡은 덕분에 자타가 공인하는 미녀 전혜진은 난데없이 '어떻게 하면 더 못생기고, 어벙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희한한 고민을 해야 하게 되었다.

이 여섯명의 청춘 주위에는 전운, 김용림, 전원주, 장하수, 양희경, 김홍석 등의 든든한 중견들이 탄탄하게 포진하고 있어 드라마의 어느 구석에서도 적어도 캐스팅으로 인한 허점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노처녀 비서 도숙자 역의 김용림과 아들 사랑이 지나쳐 자신이 아들의 인격 형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깨우치지 못하는 석준 어머니 역을 맡은 전원주의 연기 변신은 눈여겨볼 만하다. 빛나는 조연의 역할이 드라마의 완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확연히 드러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음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은 언제나 그 사회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원천이다. 대기업 입사시험에 나란히 떨어진 후 조직 사회에 종속되기 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젊음 하나만을 밑천삼아 거친 세상 속으로 두려움없이 뛰어드는 세남자의 좌충우돌식 인생 전개와 그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세여자의 인생과 사랑. 시종 웃으면서 보게 되지만 결코 뜻없는 실소로만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에 담긴 젊음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보아 갖가지 사건을 겪으며 인생과 운명을 어느 정도 깨

「세남자 세여자」는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을 관통해온 성취에의 욕망, 더 나은 사랑을 찾는 본능 등을 곱씹어 볼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심각하거나 골치 아픈 생각의 강요없이 시시때때로 터지는 경쾌한 웃음과 함께.

닫게 된 이 젊은이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점은, 역시 '사랑'일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인심이 변했다고는 하나 종단 간엔 사랑으로 인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 인생임을 그들은 모두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남자 세여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이 진정한 사랑에 눈떠가는 과정을 묘사해 나간다. 어찌보면 그저 그런 젊은 아이들의 진부하고도(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역시 그런 젊은 시절을 거쳤을 것이므로) 철없는 사랑찾기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이나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세대차이를 뛰어넘어 다양한 시청자를 잡아끄는 요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앉아있노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을 관통해온 성취에의 욕망, 더 나은 사랑을 찾는 본능 등을 곱씹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도 심각하거나 골치 아픈 생각의 강요없이 시시때때로 터지는 경쾌한 웃음과 함께 말이다. 그리하여 그 와중에 올해 어느 대학 입시 논술 문제였다는 신구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해결책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S**

글/손선영·자유기고가

사진/신동준

시선 집중

「세남자 세여자」의 탤런트 전혜진의 변장술

'못난이'로 변신한 미녀

왕만두만한 코에는 검고 투박한 안경이 걸쳐있고 레이스와 리본 등을 이용한 유아스러운 몸치장을 하는 여자, 잡지사 여기자로 자기몫을 다해내지만 언니 숙자(김용림 분)와 짝사랑하는 석준(김찬우 분)앞에서는 어린애가 되고마는 여자, 자칭 "아기 다람쥐"라는 '하마'같은 여자. 그가 「세남자 세여자」의 도혼자다. 깔끔하고 어디하나 흠잡을 데 없이 딱 부러지게 생긴 외모에 걸맞게 지금껏 성취욕이 강한 현대여성 역으로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전혜진이 이 역을 맡았다.

"누가 더구나 어느 여자가 못생기게 보이고 싶겠어요. 드라마의 흐름이 그렇고, 제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할 뿐입니다. 왜 그런 역을 맡았느냐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세남자 세여자」를 재미있게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속상한 것은 없어요. 반응이 클수록 그만큼 「세남자 세여자」가 인기

변장후, 왕만두 코가 돋보이는(?)도혼자

변장전, 아름다운 모습의 전혜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남자 세여자」가 인기가 높아질수록 추녀(?)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놀림도 받지만 드라마 중반에 '화려한 변신'이 예고되어 있어 전혜진은 '혼자되기' 작업에 더 열성이다.

혼자가 되기 위해 촬영 전날 밤에는 꼭 물을 마셔서 얼굴을 부어보이게 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리기 위해 옷도 몇 겹씩 껴입는다는 전혜진. 이 프로그램이 방송 초반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요소 중의 하나가 「세남자 세여자」에서의 전혜진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닐까 싶다.

혼자 분장의 하이라이트는 왕만두만한 코. 분장만 1시간이나 걸리는 이 특수분장은 SBS 분장팀장인 이학재가 직접 맡는다.

"처음 혼자를 뚱뚱하게 분장해 달라고 해서 난감했어요. 뚱뚱한 것이 분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연출자와 작가와의 토론 끝에 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달리 못생기게 변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전혜진 씨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요즘 한참 화제되는 전혜진의 코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석고로 해당 인물의 데드마스크를 만든 후 그 위에 점토로 코를 만들어 석고틀을 제작한다. 그 틀에 매번 피부와 근접한 콜드폰을 이용, 분장용 코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이런 특수 분장은 출연자나 분장사나 모두 힘들어 주로 특집극이나 사극에서 이용하는 편. 특히 기온차가 심한 경우에는 접착제때문에 계속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세남자 세여자」가 SBS분장팀을 언제나 긴장하게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특수분장이 많다는 것. 특히 혼자의 상상은 시청자들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하는데 이때 분장팀은 또 한번의 홍역을 치루어야 한다. 얼마전 방송된 석준과 혼자의 스님 분장이 좋은 예이다. 앞으로 「세남자 세여자」가 또 어떤 아이디어로 재미를 더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까닭이 아닐까 싶다. S

큐 스튜디오

「신세대 전원집합」
풋풋하고 건강한 젊음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진행/신동엽, 김나운

연출/김혁

방송/매주 월요일
저녁7시 5분~8시

늘 새로운 것에 매료되는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신세대 전원집합」은 쇼와 코미디 그리고 드라마의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싱그러운 웃음을 담고 있다.

신세대? 오렌지족인가? 아니면 야타족인가? 일부 젊은이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고방식 때문에 요즘 신세대들의 이미지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순수, 발랄, 미래 등 갖가지 좋은 단어로 연상되던 신세대들의 모습이 쾌락, 무사안일로 비춰진지도 오래다.

이런 신세대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신세대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SBS－TV「신세대 전원집합」이 바로 그것. 어두운 면보다는 밝고 싱싱한 신세대의 원래 모습을 그리려고 애쓰는「신세대 전원집합」은 신세대만을 겨냥한 유일한 TV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신선한 웃음이 담겨져 있다.

신동엽, 김나운의 활기넘치는 진행과 이동우, 윤정수, 김경식 등 패널로 참가하는 신세대 개그맨들의 재치, 그리고 등촌동 공개홀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의 밝은 모습이 바로「신세대 전원집합」이 이끌어내는 신세대의 본 모습이다.

청소년들에게 은연중 긍정적인 사고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동자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신세대 전원집합」제작진은 과감히 '재미'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메시지와 재미로 양분되어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기 십상인데 그럴 경우 변덕이 심한 신세대의 기호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인 듯하다. 일단 그들의 시

선을 고정시킨 후 자연스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욕심이 제작진의 과감한 결단에 한 몫한다.

신세대에게 인기있는 연예인이 있다면 「신세대 전원집합」은 즉시 그 연예인을 출연시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한 며칠 밤을 고생해 짜낸 새 코너도 한달이면 그들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

"항상 새로워야 신세대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신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매일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구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선장인 김혁 프로듀서의 말이다.

새 여자 MC인 김나운의 발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입담좋고 재치있고 무엇보다도 신세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점이 제작진에게 부각된 것이다.

전도연의 뒤를 이어 「신세대 전원집합」호의 항해를 이끌고 있는 김나운의 역량은 첫 녹화때부터 두드러졌다. 처음 해보는 진행이라 다소 떨림과 어색함이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입담좋기로 소문난, 신동엽과의 애드립 싸움에서도 전혀 밀림이 없어 차세대 MC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김나운이란 매력적인 새 식구를 영입하고 월요일 저녁

입담좋은 신동엽과 똑소리 나는 야무진 새로운 여자 진행자 김나운 그리고 이동우, 김경식, 윤정수 등 재치와 유모 넘치는 패널들이 똘똘 뭉쳐 「신세대 전원집합」을 활기차게 이끌어나간다.

7시 5분으로 방송 시간을 옮긴 「신세대 전원집합」은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포맷으로 신세대 시청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대 전원집합」은 버라이어티쇼다. 55분이라는 그리 길지않은 시간이지만 쇼, 코미디, 드라마의 요소가 적절히 포함된 새로운 형식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오락프로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신세대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도 이런 요소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처음과 끝은 인기 절정의 가수를 초청, 노래를 듣는 시간으로, 중간 부분은 큰 세 토막의 코너로 나뉜다.

첫 시작은 '신세대 소극장'이다. 김나운의 MC 데뷔를 축하하며 마련한 「유치원에 간 사나이」편에는 얼마전 드라마의 상대역으로 나왔던 허준호가 함께 출연했다. 이렇게 유명 외화를 각색해서 만든 패러디는 요즘 오락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코너는 아니지만 코믹한 장면과 대사로 본래 영화와는 색다른 맛으로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다. 「유치원에 간 사나이」에서는 납치범으로 변한 이동우의 어벙한 연기가 맛난 조미료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지금까지 '신세대 소극장'을 통해 「채플린」「스위치」「서편제」「엑소시스트」「더티 댄싱」「리셀 웨폰」 등이 방송되었다. 앞으로도 화제 영화를 위주로 꾸며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참이다.

이어지는 코너는 '특선 다큐멘터리' 이 코너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가상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꾸민 코너로 「신세대 전원집합」이 자랑하는 시간이다. 한창 월드컵 본선 진출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예상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전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했고 개그맨 윤정수가 코미디 대

신세대에게 인기있는 연예인이 있다면 즉시 출연시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며칠밤을 고생해 짜낸 새 코너도 한달이면 새롭게 탈바꿈한다. 항상 새로운 그 무엇을 찾아나서는 제작진의 노력이 곧 「신세대 전원집합」의 매력이다.

화제의 영화를 재미있게 각색해 색다른 맛으로 재탄생시키는 '신세대 소극장'은 코믹한 장면과 예상치 못하는 톡톡 튀는 대사로 폭소를 터트리게 만든다.

상을 수상했을 때를 가상하여 에피소드와 해프닝을 꾸며보이기도 했다.

또한 진행자 김나운의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얘기를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나운낭자전」은 「꾸러기 대행진」 「깜짝 비디오쇼」 등을 연출했던 김혁 프로듀서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특선 다큐멘터리'의 제작은 여간 어렵지 않다. 대본에 쓰여진 대로 필요한 부분만 영화에서 골라낸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한다. 「나운낭자전」만 해도 「드라큐라」 「람보」 「십계」 「씨받이」 「마이키 이야기」 「베를린 천사의 시」등 총 16편의 영화를 짜깁기해 만들어졌는데, 다른 영화의 인상 깊었던 장면 장면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찾아냈을까"하는 물음이 절로 나온다.

한 예로 「나운낭자전」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대본에 맞는 장면이 담긴 영화를 기억해내느라 이틀이 걸렸고, 영화의 장면을 찾아 새롭게 구성하는 데만 또 이틀이 걸렸다고. '비디오 클립'의 참맛을 느끼고 싶은 이가 있다면 '특선 다큐멘터리'를 적극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축하합니다' 코너는 「신세대 전원집합」에서는 유일하게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생일을 맞은 사람, 결혼 축하 등의 얘기가 '축하합니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축하합니다'의 특색은 그동안 버라이어티쇼에서 볼 수 없었던 토크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사는 모습을 좀더 깊숙이 파고

들어 시청자들에게 출연자의 기쁨을 함께 느끼게 해주고 있다.

"유일한 신세대만을 위한 프로답게 그들의 정서 순화와 기성세대와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는 김혁 프로듀서의 말처럼 올바른 신세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신세대 전원집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S

글/정교민·일간스포츠 연예부 기자
사진/서창식

인터뷰

「신세대 전원집합」새 MC 김나운

"똑소리나는 재치로 신세대의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전천후 엔터테이너를 필요로 한다. 미국 일본 등 방송 선진국의 예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국내 연예인들의 흐름에서도 이를 감지해낼 수 있다.

여러 드라마를 통해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탤런트 김나운도 이 흐름에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SBS-TV 「신세대 전원집합」의 새로운 여자 진행자를 맡은 것이 바로 그것. 연기, 춤, 노래 등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하는 버라이어티쇼의 MC에 발탁된 것만으로도 그녀의 잠재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섭외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요. 주위의 권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뛰어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세대 시청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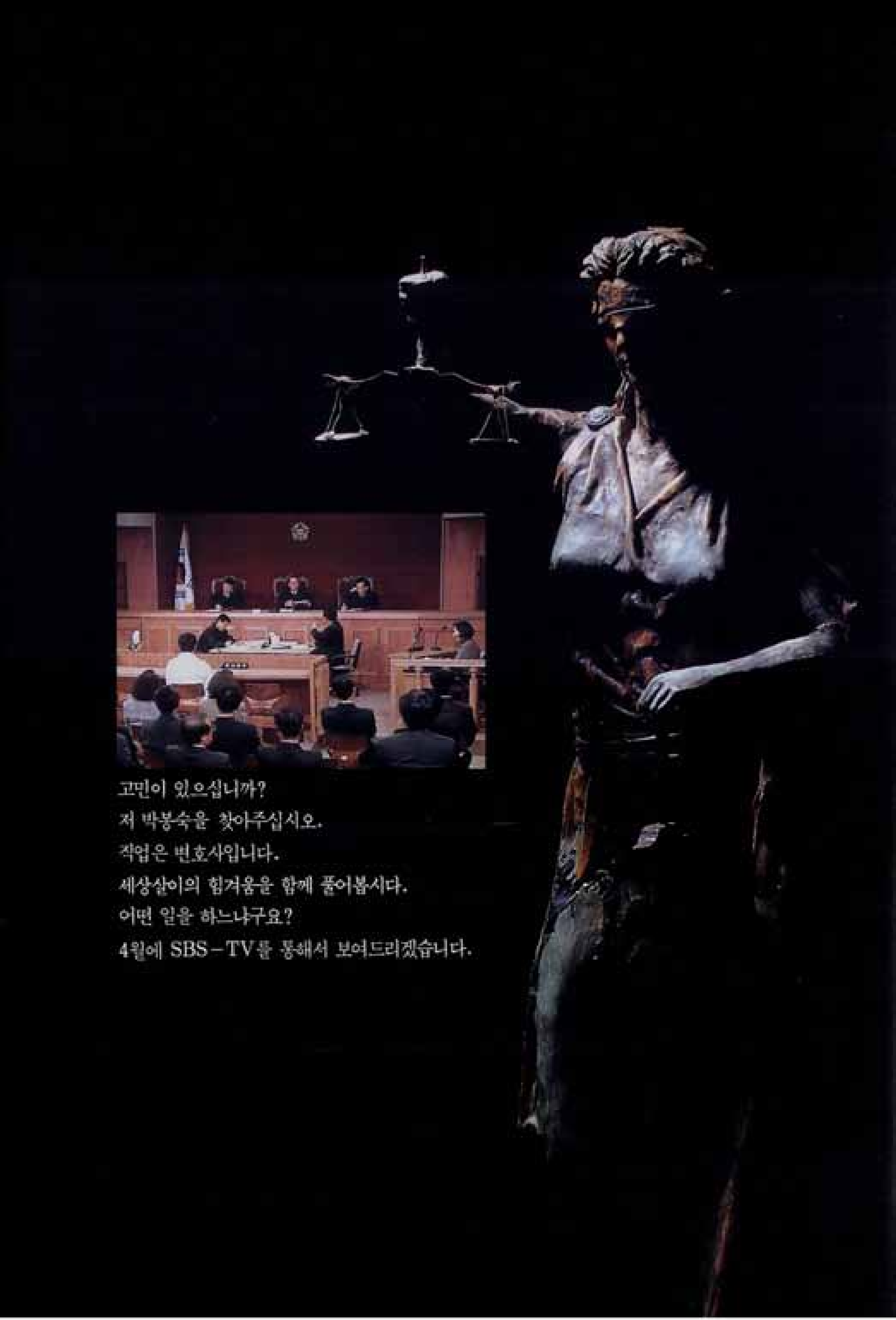
MC 데뷔는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여의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 87년 「푸른교실」을 통해 방송과 인연을 맺은 후로 드라마 외의 분야에 첫 외도를 시도하는 것이고,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시험해 보는 첫 무대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줄곧 성인 드라마에 출연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나이를 한번 되찾아보겠다는(?)각오도 대단하다.

"탤런트가 주업이고 MC가 부업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한다' '잘한다'는 말을 듣도록 할거예요."

순발력과 재치가 뛰어난 김나운의 보강으로 「신세대 전원집합」이 더욱 재미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해본다. S

김한영 연출의 법정 드라마

박봉숙 변호사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 박봉숙을 찾아주십시오.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세상살이의 힘겨움을 함께 풀어봅시다.
어떤 일을 하느냐구요?
4월에 SBS-TV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의 탤런트 장혜숙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 아침 햇살같은 여자

아침은 '시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싱그러움으로 다가온다. 억지로 노곤한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하루를 여는 아침의 환한 햇살은 그 전날의 피곤과 고뇌를 떨쳐버리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다.

장혜숙은 그 시작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아침의 햇살처럼 맑고 환한 웃음을 지닌 연기자다. 마치 '마론인형'을 연상시키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선이 가는 몸매는 서양과 동양의 미가 적절히 어우러진 듯한 느낌이다.

지난해 봄 SBS 3기 탤런트로 연기의 길에 들어선 그는 1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인 연기자로서 출발선에 섰다. 지난 2월 14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SBS-TV 아침 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가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가 이 드라마에서 맡은 역은 한 여자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남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차지하려는 여자 한경숙. 부유한 집안의 딸로 남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이기적이고 당당한 여자다. 어찌보면 남의 진실된 사랑을 방해하는 것만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장혜숙은 그것이 경숙 나름대로의 사랑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모르고 귀엽게만 자라온 이가 남의 입장을 쉽게 감싸안기란 힘들다는 생각에서이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늘 '경숙'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연기의 매력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푹 빠져보는 데 있나 싶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남다른 패션감각을 지닌 그는 대한항공 영에이지 SS패션 등의 CF모델로 활동했고, 92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서울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유아교육인데, 어려서부터 방송인을 하고 싶었던 그의 또 하나 꿈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SBS테마 시리즈 「사랑이라 부르는 것」「목소리를 낮춰요」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장혜숙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또 풀어나갈 그의 꿈들이 그가 선택한 일, 연기를 통해 맘껏 펼쳐지기를 바란다. S

글/신선화 사진/정분경

주일청

뚝배기 같은 진한 정감으로 빚어온 드라마 미학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 데요."

마음좋게 생긴 외모에 털털하게 웃는 모습이 옆집 사는 아저씨 같아서인지 그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 예외없이 듣는 말이다. "개성이 없어서"라는 그의 대답은 겸손일 뿐, 오십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온다.

서울방송 TV제작국의 야전사령관 주일청 국장은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있고 고급 양주를 선호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어머니에게서나 들었을 법한 먼 옛날 고향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따르는 젊은 후배들이 많이 있고, 다가오는 후배들을 향해 늘 문 열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어느날 오후, 그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제작국의 한 후배가 불쑥 들어와서 그에게 말을 건낸다.

"어제 시청률 결과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응!백원만 주면."

"천원 드릴게요."

천연덕스럽게 흥정(?)을 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의 자료를 찾는 그의 얼굴엔 안방의 아버지에게 찾아온 아들을 대하는 듯 인자한 미소가 감돈다.

SBS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주일청 국장이 대부(代父)라는 애칭을 얻게된 이유는 그가 나이 쉰을 넘긴 노(老)프로듀서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다른 장면이 있다.

서로 몸을 부딪치지 않으면 걸어다닐 수조차 없이 비좁던 서울방송 TV제작국에서 예능파트가 등촌동 SBS공개홀로 이사가던 날, 그는 제작국에서 없는 듯 차지하고 있던 자신의 자리를 한쪽 벽면을 막은 '버젓한 국장실'로 옮겼었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사람 좋기로 소문난 주일청 국장은 일단 드라마 제작에 뛰어들면 불도저 같은 밀어붙이는 힘으로 촬영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오른쪽 사진은 「겨울새」 촬영 현장에서의 모습. 공전에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SBS 아침드라마를 최정상에 올려놓은 「겨울새」(왼쪽 위 사진)와 92년 신년 특집 2부작 「다시 열리는 세월」(왼쪽 아래 사진)도 그의 노련미가 빚어낸 성공작이었다. 93년부터 서울방송 TV제작국장을 맡고 있는 그가 후배들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제작 현장에서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걷어부치고 책상을 이리저리 옮기던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연신 땀을 훔치는 손등에는 시커먼 검댕이가 묻어있었다. 육중한 몸매를 지닌 그가 후배들과 함께 땀흘리는 모습은 근엄한 국장이 아닌 솔선하는 선배에 불과했다.

약주를 워낙 좋아하는 그는 평소 후배 프로듀서들과 소주잔 기울이기를 즐겨온 탓에 꽃같이 젊은 시절 날렵했을 법한 몸매는 망치다 못해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절대로 술은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와중에도 "집안의 혈통이 그래서"라고 변명하는 것을 잊지 않지만 그의 중후하고 넉넉한 풍채는 '만만디'그대로인 성격의 단면을 드러낸다.

옆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코끝에 막걸리와 된장국 냄새가 솔솔 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투박하지만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끈질기기가

고래심줄이다. 끝을 보고야마는 성미가 그의 대륙적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SBS가 「머나먼 쏭바강」을 베트남 현지에서 촬영할 때의 일이다. 벌써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어야 할 제작진들이 일정이 끝나가는데도 전체의 3분의 1도 마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당시 제작위원이던 그는 「머나먼 쏭바강」의 CP를 자청했었다. 단숨에 날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일단 모두 귀국시킨 그는 전열을 재정비, 2차 촬영을 나갔다. 말라리아와 전갈의 공포에 시달리던 '머나먼'이국에서 그는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제작진을 독려해가며 촬영을 강행군, 예정대로 촬영을 모두 마치게 했다. '뚝심 프로듀서'의 저력이 창사 특집극을 무사히 창사 때에 맞춰 방송할 수 있도록 일조한 것이다.

연기자 스태프 전원이 합심해 무더위와 열

악한 여건 속에서 만들어낸 「머나먼 쏭바강」이었지만 이 드라마는 그를 스스로 불효자라 생각케 하는 작품이다.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뒤로 하고 떠났던 베트남에서 한창 「머나먼 쏭바강」을 만들던 때 불현듯 들려온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부랴부랴 달려온 그는 임종도 못본 불효자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제작 일정은 그의 등을 떠밀듯 재촉했고 망모가(忘母歌)를 채 부르기도 전에 그는 또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갔었다.

SBS-TV를 통해 방송된 그의 작품은 신년 특집 드라마 2부작 「다시 열리는 세월」「SBS 여성극장」「겨울새」 등이다. 특히 「겨울새」는 국내 방송사상 최고의 시청점유율을 기록, '아침드라마는 SBS'라는 확실한 자리매김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인기 프로듀서'자리를 되찾게 하기도 했다.

드라마 「내마음 별과 같이」(오른쪽 사진)는 그가 직접 주제가를 작사를 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 더구나 동생인 탤런트 주현이 출연해 화제가 됐었다. 70년대초 코믹 드라마 「산바람 갯바람」에서는 연기자로 출연한 적이 있었다(아래 사진 오른쪽 첫번째). 이때 연기자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실감했다는 그는 연기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회고한다.

그는 한국방송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방송계에 입문한지가 올해가 26년째를 맞이한다. 평생을 드라마 제작에 몸바쳐온 그가 주로 만든 드라마는 한국방송공사의 「TV문학관」의 단막극들이다. 「TV문학관」에서 만든 작품수가 모두 30편 가까이에 이르며 아직도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주일청 국장을 'TV문학관 전문 프로듀서'로 기억한다.

주일청 프로듀서 연보

1943년 10월 3일 함남 혜산진 출생
1956년 서울 홍인국교 졸업
1959년 서울중학교 졸업
1962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66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졸업
1968년 ROTC 4기 육군 중위 제대
KBS 공채 1기로 입사
1971~1976년 「주말무대－귀신의 집」으로 새내기 연출
「새마을드라마」「KBS 무대」「전우」 등 연출
1980~1981년 「청자빛 하늘 아래」「탈출」
「가족」「싱글네 벙글네」 등 연출
1982~1986년 제51화 '갯마을'을 필두로 '이어도'
'백치 아다다' '와룡선생 상경기' '수몰촌'
'하늘만큼 먼나라' 등 「TV문학관」을
30편 가까이 연출
1987년 주말연속극 「내마음 별과 같이」 연출
1988년 대하드라마 「토지」 1~3부 연출
1991년 SBS 입사
1992~1993년 신년 특집 2부작 「다시 열리는 세월」,
「SBS 여성극장」「겨울새」 등 연출
「열정시대」 CP, 「머나먼 쏭바강」 제작 등 담당.
현재 SBS TV제작국장

섬마을 사람들의 서정을 그린 「갈매기」를 비롯, 「갑비 천불불이」「갯바람」 등이 그의 작품들. 한편 그는 인간의 고뇌와 내면의 세계를 드라마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기억 속의 들꽃」「동행」「백치 아다다」「병어회」「불발곰의 설화」「사과와 다섯 병정」「사랑의 조건」「새와 나무」「석화촌」「수몰촌」「약속」「이어도」「저승새」「죄와 벌」등을 봤던 사람들은 무게 중심이 확실히 잡혀있는 그의 작품세계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야외 촬영이 80퍼센트여서 출연진과 스태프들을 강행군시켰던 「내마음 별과 같이」는 그가 직접 주제가 작사를 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신바람나 한다. 「내마음 별과 같이」주제가는 요즘 노래방 인기 순위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30~40대층 사이에는 누구나 부를 줄 알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이 드라마에는 동생인 탤런트 주현이 출연, 눈길을 끌었다.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KBS 대하드라마 「토지」도 그의 손을 거쳐간 대표작. 이 작품은 장대한 스케일로 당시 아역 배우 안연홍과 최수지를 일약 스타 대열에 올려놓았었다.

어느새 흰머리 희끗한 노신사가 되어버린 그이지만 오늘도 후배들을 독려한다.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의 첫 회분 촬영을 끝낸 후배가 시사를 요청했을 때도 그는 "수고했다"는 말을 제일 먼저 챙기는 선배인 것이다.

글/강영란·자유기고가
사진/정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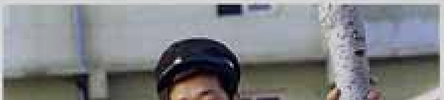
방송 소품인 임응순

드라마 구석구석에 '생활'을 꾸미는 알뜰한 살림꾼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고 치자. 좁은 골목길에서 남녀 주인공이 데이트를 마치고 서로 헤어지기 전에 인사하는 장면. 주인공의 등 너머로 보이는 벽에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고 '조루증, 발기부전'이라는 전단이 붙어 있다. 시청자는 그런 사소한 것만으로도 시대적인 배경을, 아니 묘한 정감과 향수까지 겹쳐서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방송에 있어서 소품이란 그렇게 사소하면서도, 그렇게 의미를 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84년,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는 형을 따라 방송도 재미있는 일이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송 소품을 맡게 된 임용순도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그는 다른 많은 SBS맨처럼 서울방송이 아직 전파를 쏘기도 전에 입사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개국 첫 주말연속극이었던 「은하수를 아시나요」에서부터 「모래위의 욕망」 「결혼」 「일과 사랑」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품을 담당했다. 집에 들어간 날보다는 안



창사 특집 대하드라마 「모래 시계」의 60, 70년대 학생교복을 소품으로 마련하면서, 그도 문득 그 시절을 회상해 보려는 듯이 교복을 입어보았다. 위 사진은 「모래 시계」의 한 장면.

들어간 날이 더 많고 본사보다는 일산 스튜디오, 일산 스튜디오보다는 거리를 헤매고 다닌 날이 더 많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 조차 완벽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소품이란 일은 축적된 자산이 소중한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개국한지 얼마 안된 서울방송에서 소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임웅순은 서울방송으로 옮기기 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주로 사극을 많이 맡았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는 사극이다. 또 현대물의 소품은 어차피 생활의 소품이 드라마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래도 시청자가 아련한 추억 속에 그 시대를 읽고 있는 60, 70년대이다.

그는 요즘 서울방송이 의욕적으로 만들고 있는 창사 특집 대하드라마 「모래시계」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모래시계」가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를 관통하는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 대대적인 기획때문에 모두들 의욕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드라마에서 소품을 맡고 있는 임웅순은 자신도 소품 인생에 승부를 건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

서울방송에서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30명 가까이 된다. 소품에 무슨 사람

소품이라는 분야는 그 시절에 맞는 대형가구에서부터 조그마한 신문쪼가리까지, 때로는 먹는 밥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큼직한 일보다는 그저 사소한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소품이다. 그래서 임웅순은 끈기와 성실함이 소품을 맡는 사람들의 소중한 덕목이 된다고 말한다.

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겠지만, 소품이라는 분야는 대형가구에서부터 조그마한 신문쪼가리까지, 때로는 먹을 밥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큼직한 일보다는 그저 사소한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소품이다. 그래서 그는 끈기와 성실함이 소품을 맡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말한다.

모든 방송일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소품도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일단 시놉시스가 나오면 전체적인 드라마의 윤곽을 그리면서 소품을 구상하고, 작품이 나오면 등장인물의 성격에 이르기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서면 카메라 동선까지도 고려해서 소품을 배치한다. 그 이전에 촬영 현장을 답사하러 갈 때도 프로듀서와 카메라맨, 그리고 소품 담당이 함께 가야한다.

많은 종류의 소품은 구입에 의존하지만 만들어야 할 것도 많고 때로는 우리 나라 구석구석을 뒤져서 찾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청계천이나 인사동, 그리고 도깨비시장 등이 그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때로는 수몰지역을 찾아가 수장될 운명에 처한 것들을 건져내어 방송 제작에 이용하기도 한다. 하여튼 소품이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까지 해내야 하는 일이다. 천 가지, 만 가지를 어쨌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소품이 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어떤 '무지한' 방송사 간부가 드라마 소품은 남대문 지게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단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과연 소품은 고사하고 드라마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란다.

드라마란 하나의 대사에서부터 연출, 짧은 화면, 무대 디자인, 의상, 그리고 소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치 담글 때 고무장갑을 안끼는 것처럼 그 손맛을 어떻게 살리느냐를 두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된다. 남대문 지게꾼에게 소품을 맡긴다면 아직도 방송을 학예회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청자의 안목이 예리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소홀한 것은 당연히 부족한 것이 된다. 남대문 지게꾼도 물건을 빨리, 안전하게 옮기는, 나름대로 전공이 있는 장인이 아닌가.

소품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알아야 한다. 록카페도 알아야 하고 로바다야끼도 알아야 한다. 그는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곳을 다녀보기도 하고 어떤 장소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만약 이곳에서 드라마 「일과 사랑」을 찍는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둘러본다. 한편으로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소품이다. 역사 서적은 물론 최근의 화보도 시대별로 많이 봐둬야 한다. 그는 소극적으로 소품을 이용하다가 필요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소품을 챙겨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소품 경제학을 가지고 있다.

소품은 자료의 싸움이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품 경쟁의 밑천이 된다. 「모래시계」 촬영을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 뿌려진 호외를 구하기 위해서 신문사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는 소품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소품도록」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60,70년대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할 때,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을테니까. S

글/박주필·방송작가

사진/신동준

CATS

잠깐만!

뮤지컬 「CATS」 내한공연

항상 수준 높은 공연을 마련하여 시청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온 SBS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뮤지컬 「CATS」의 내한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감독·안무·디자이너 및 스태프가 모두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진으로 구성되고, 뮤지컬 TV 영화 등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배우들이 참여하여 마련된 이번 공연은 이미 싱가폴, 홍콩 공연을 통해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세계 최정상의 뮤지컬 팀이 선보이는 이번 「CATS」 공연은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시 / 2월 24일~3월 12일 저녁 7시 30분
  (휴일은 오후 3시 공연 있음, 월요일 휴관)
- 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예매처 / 시내 각 유명 예매처
- 입장요금 / R석 80,000원, S석 70,000원, A석 60,000원, B석 50,000원, C석 40,000원, D석 30,000원, E석 20,000원

SBS 소식

SBS문화재단, 서암학술장학재단
'94 정기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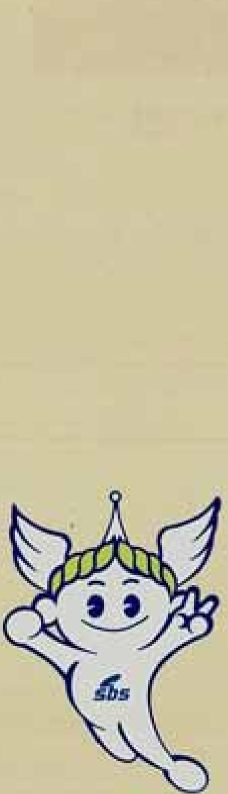
환경보전과 과학기술 연구에 지속적인 지원

서울방송의 공익재단인 SBS문화재단은 지난 2월 4일 63빌딩 멤버스클럽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94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94년도 사업 계획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해외 석학 초빙의 학술지원사업,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외 대학의 문화지원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은 SBS문화재단의 역점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의 주제는 '물 문제 개선'이다. 이에 따라 SBS문화재단은 국내 대학연구소 중 1개를 지정, 세미나 개최와 연구논문집 발표를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보도 교육을 위해 국내 신문방송학과가 있는 대학 1곳을 선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를 지원키로 했다.

이 문화재단은 이사장인 윤세영 서울방송 사장을 비롯 강일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성춘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윤혁기 방송개발원장, 이현구 서울대 화학공학과 교수, 우석호 서울방송 관리이사, 오택섭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의 이사진과 감사는 이덕주 SBS시청자위원장과 호영진 한국경제신문 상임고문이, 사무국장은 엄광



2월 4일 63빌딩에서 열린 SBS문화재단 '94년 정기 이사회

석 서울방송 기획부장이 맡고 있다.

SBS문화재단은 학술, 문화 언론의 진흥을 위한 장학 연구 지원 및 관련 공익사업을 통해 과학을 비롯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SBS가 매년 회사 세전이익금의 15퍼센트를 출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방송 윤세영 사장이 이사장인 서암학술장학재단도 지난 2월 7일 63빌딩 멤버스클럽에서 94년도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확정된 '94 재단 사업 계획에 따르면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국내외 학술지원사업, 모범사도상을 기리기 위한 교육대상, 그리고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지원사업, 문화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199명, 20개 단체에 9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1989년 8월 23일 설립된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총 3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4년 2월 현재 자산 규모가 204억원에 이른다. 이 재단은 지난 한해 동안 해외 연구 5명을 비롯, 국내 학술 연구 20명, 해외 학술 연구 7명, 서암교육대상 8명에게 연구지원금과 상금을 지급했으며 고교생 90명, 대학생 15명, 대학 입학자 26명 등 13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서암문고 도서지원, 문화·교육·방송 및 언론단체 지원 등으로 총 7억 6,8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장학재단은 윤세영 이사장을 비롯 서기원 전 방송협회장, 김호길 포항공대 학장, 서정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수성 서울대 교수, 정근모 아주대 교수, 정우모 태영산업 사장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덕주, 호영진 씨가 감사로 있다.

매거진 컬럼

뚝심있게 밀고나간 실험정신의 쾌거

최인국·TV제작국 부국장대우 영상제작부장

최인국·1945년 서울에서 나서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71년 KBS에 입사, 방송일을 시작한 후 계속 TV 카메라 일을 한 길로 걸어왔다. 91년 SBS로 자리를 옮겨 영상제작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세련된 영상미를 창출하기 위해 힘써왔다.

'SBS 개국 4주, 난시청 고민' 91년의 마지막 날, 모 일간지의 유난히도 크게 느껴졌던 이 기사는 SBS맨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행히 작년에 관악산과 용문산의 중계소와 8개소의 간이 중계소가 완공되고부터 가시청권이 남쪽으로 천안, 청주, 동쪽으로는 홍천, 제천까지 대폭 확대되어 이 기사도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다.

기대에 못미친 시청률과 난시청 등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방송은「방송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 제도·환경·변화·경영· 프로그램 편성 등에 걸쳐 조사 결과를 담은「방송조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세계 주요국가의 편성 분석표까지 싣고 있었다. 또 이 보고서는 국내 방송사에 대한 연구 조사도 발표했는데 새로 태어난 민방이 기존 방송사의 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방송계의 시선을 끌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서울방송은 한살박이 아이로 걸음마를 계속했다

세계 방송가에서는 프랑스 상업 TV방송 라싱크의 파산 소식이 긴박하게 타전되었다. '부채 약 5억 5,000만 달러, 시청률 경쟁의 패배로 후원자와 광고주들이 등 돌려, 선진국에서는 상업방송이 적자로 문을 닫게 된 것은 처음'이라는 라싱크의 파산 소식은 SBS 모 대기업 인수설로까지 비약되었다. 이런 악성 루머는 현업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쁜 SBS맨들에게 이중고로 다가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92년 4월 20일 서울방송 사보 제 14호 에서는 작가 송지나와 이정혜의 인터뷰 기사

일러스트·김진국

를 실었는데 한국 방송계의 다큐멘터리사에 한획을 굵게 그은「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초창기 정예작가들이었다.

"SBS는 일을 몰상식(?)하게 시키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들이 인터뷰를 통해 한 이 말은 작가다운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이다.

비록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늘의 SBS가 있기까지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들의 집합이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뛰어나 능력이나 기량보다는 인간성, 즉 사람 됨됨이를 스카우트 조건의 첫째로 내세웠던 회사의 방침이 똑소리 나게 맞아떨어졌다고 하겠다.

서울방송의 인간 존중과 인력 개발의 굳은 의지는 SBS문화재단과 서암학술장학재단의 등장으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개국 6개월째를 맞는 서울방송이 힘찬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방송사 시청률 판도 뒤흔들기 시작' 'SBS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일단 성공적', TV개국 6개월째 여러 일간지와 TV잡지 등에서 크고 작은 제목으로 서울방송의 큰 기지개를 낭보로 전하기 시작했다. 개국 직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서울방송의 각종 프로그램이 92년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이후 점차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낸「코미디 전망대」등 코미디 프로그램을 선두로「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금잔화」를

비롯한 여러 드라마들이 인기 대열에 성큼 올라섰는가 하면, 주말의 개념을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꿔버린 「SBS 영화특급」의 시청률은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최고를 기록했다. 봄철 개편 이후 오르기 시작한 SBS의 시청률은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도 여전히 고개 숙일 줄 모른다.

그해 여름 현대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가 8월 12일 뉴욕에서 타계했다. 그를 예술의 대부로 모셨던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존 케이지를 추모하는 글은 누구라도 한번쯤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편성국장은 시청률 선두 비결에 대해 "항상 새로운 것, 대담한 것을 과감하게 시도해온 결과"라고 대답했다.

92년 12월 9일, 각 일간지의 매스컴란에는 SBS-TV 1년의 평가에 대하여 대서특필했다.

그 가운데 서울방송 1년에 대한 모 교수의 조심스런 발표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는다.

"SBS는 10대와 20대, 또 여성들을 주 시청자로 목표한 것에 일단은 성공했다. 아침드라마 「고독의 문」 「겨울새」 「가을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보여준 애정어린 관심은 SBS맨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라는 고객에 의해 판매되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는 내게 실험정신, 즉 남보다 우수한 작품보다는 남과 다른 작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백남준은 또 "예술은 시장 원리와 다를 바 없다. 우선은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최대공약수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공약수. 이는 곧 TV에서는 시청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라는 고객에 의해 판매되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의 예술시장 원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덧붙여 우리는 일본의 민영 방송사 후지TV가 92년 TV방송 시청률 통계 결과, 시청률 지표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11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지 TV의 무라가미

여자」는 주부들의 시청 점유율을 확실히 잡았고, 일요일 저녁의 「꾸러기 대행진」도 만만찮은 젊은 시청자층을 갖게 되었다.… 또 하나 SBS가 성공한 점은 채널 특성화의 한 방안으로 9시 뉴스라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이러한 SBS의 성공적인 예들은 특정한 계층, 특정한 성향의 시청자층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그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필요한 것은 그저 표피적인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문화 환경에서 갖는 의미와 그것을 통해 시청자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비판"이라고. S

잠깐만!

SBS-TV 「결혼」 배경음악 음반 출반

감동적인 선율과 함께 오랜 여운으로 간직될 '인생과 만남'

세 자매의 각기 다른 인생 역정이 현실감있게 전개되어 인기를 얻고 있는 「결혼」의 주제곡 및 배경음악이 음반으로 출반되었습니다. 지영(최명길 분)의 테마 「겨울을 기다리며」, 서영(조민수 분)의 테마 「참다운 만남을 위해」, 채영(유호정 분)의 테마 「비창」 등의 연주곡을 비롯, 이상우가 부른 「어제로 향한 시간」 「비창」 등의 삽입곡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주부에게 도움주는 환경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면

요즘 가장 큰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다. 그도 그럴 것이 심하게 오염된 폐수를 보며 저 물을 내가 다시 마신다고 생각해보면 섬뜩하다.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우유를 그냥 하수구에 버릴 경우 그것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리고자 하는 우유를 물로 희석해서 화분에 뿌려 주면 훌륭한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있다. 그 후부터 나는 아기가 먹다 남긴 우유는 병에 모아 두었다가 항상 아파트 화단에 뿌리게 되었다.

내가 만약 그 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우유를 그냥 하수구에 흘려 버리고 있을 것이다.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뭐하나 하는 게으른 생각을 나부터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 정보나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TV프로그램이 있다면 주부들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간이 할애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주부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아침시간이나 저녁 뉴스 전후의 시간대에 방송을 한다면 아마도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S

박경희·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202
성우아파트 나동 108호

「SBS 8 뉴스」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접하게 되는 경제 흐름과 물가 변동

평소 SBS-TV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취해오는 공세도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SBS에서 마련한 연중 기획 50부작 「21세기 신한국의 선택」은 참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한가닥을 잡아줄 수 있는 알찬 내용이다. SBS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점에서 SBS도 이젠 자리잡음을 확실히 했다는 느낌이다. 계속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SBS 8시 뉴스」는 1시간 앞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날의 뉴스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진행자의 깔끔한 진행, 조리있는 말솜씨는 1시간 앞선 뉴스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또 「SBS 8 뉴스」는 경제면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더욱 알차고 심도있게 보도해주기를 바란다.

한가지 부탁한다면 화면 구성이 조금 취약한데 자료에 많이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완벽한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SBS-TV의 오락 프로는 개국때부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SBS의 오락 프로가 시청률이 높은 까닭은 그만큼 다양하게 꾸며지기 때문이다. 단지 옥의 티라면 주 진행자 외에 보조 진행자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여 산만하고 동시에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코너를 하더라도 심도있는 진행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보조 진행자들이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박수를 치느라고 시간이 다가고 배경 음악도 너무 크게 들린다. 물론 주의를 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줄은 알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알찬 진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

이혜런·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24동 506호

SBS는 시청취자와 함께 만듭니다

SBS-TV와 라디오를 시청취하면서 느낀 점이나 방송 전반에 관한 의견, SBS에 바라는 의견, 「SBS 매거진」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글은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마감은 **매달 15일**까지 입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서울방송 홍보부 「SBS 매거진」 앞
(우편번호 150-777)

「세남자 세여자」를 보고
"지루하지 않은 박진감 넘치는 극의 빠른 진행에 매료"

월화드라마 「세남자 세여자」에서는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심신을 달래며 식후에 편한 자세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주는 색다른 맛의 얘기거리가 흘러나온다.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덕분에 어수선한 사회의 움직임을 잊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흥미로운 주제에 빠뜨려 버린다. 드라마 첫 회에 보여준 주인공들의 신선한 등장과 극의 전개 방식은 시선을 머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짐작케 만들어 다음 회를 기대하게 한다.

지나치게 남녀간 사랑에 치우쳐 평형성을 잃기 쉬운 기존의 드라마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종횡무진 진행되는 흐름은 시청자들이 한눈을 팔 수 없도록 만든다. 또한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등장하여 앞으로 전개될 얘기가 무진장 다채로울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층도 폭넓을 수밖에 없다. 자신만의 우상을 그려보고 그 대상과의 만남과 사랑을 갈구하는 청소년, 뜨거운 연애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야기인 양 빠져드는 청춘남녀, 마치 자녀들의 성장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되는 부모님 세대, 손자와 손녀의 귀여운 재롱을 대신해 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 세대 등등, 모두 시청자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흥미에만 편중하지 말고, 사회의 움직임을 스케치해 갈등과 내분이라는 조미료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얼큰한 국물 맛을 내는 진국 같은 드라마가 되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S

김이경·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1동
풍림1차아파트 401동 504호

「집중! 여섯명의 여자」를 보고

"열심히 사는 여성들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

결혼한지 3년이 된 주부인 나는 남편이 비교적 귀가가 늦은 관계로 심야 프로그램을 즐기는 편이다. 그중에서도 SBS-TV의「집중! 여섯명의 여자」는 내가 좀처럼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그것은「집중! 여섯명의 여자」가 다른 토크쇼와 달리 우리 주위의 보통 여자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므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17일 방송된 내용은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이제는 옛일로만 생각되었던 처녀시절의 풋풋한 추억을 되살려 주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자주 데이트를 하던 백마 화사랑의 여주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본 사람인 주인공이 평범한 한국 여인으로 뿌리내린 이야기를 정감있게 영상화하여 마치 내가 그 시절 그 장소로 돌아가는 듯한 묘한 감흥을 느끼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처럼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특별하게' 담아냄으로써 대리 체험의 짜릿한 흥분과 함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나같은 전업주부들에게 다른 여성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우리들에게「집중! 여섯명의 여자」속의 삶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주며, 이웃집 여자들과의 수다거리도 제공해 준다. 잘은 모르지만 페미니즘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S

김정화·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50

「스타와 이밤을」 보고
"스타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스타와 이밤을」은 처음부터 끝까지 SBS다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참 재미있는 토크쇼이다. 스타라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고 아기자기하게 요리해내기 위해 '아이디어 채집'에 애썼을 제작진들의 노력과 감각이 프로그램 여기 저기서 묻어났다.

먼저 진행자인 이계진 아나운서의 소탈한 스웨터 차림은 의외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지금까지 메인 진행자의 옷차림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차림이 정석이다시피 해서 컬러 셔츠를 안에 받쳐입은 라운드 스웨터의 그의 모습은 뜻밖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차림은 오히려 그의 부드러운 외모, 말씨와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갔다.

여성 진행자 이영현 역시 프로그램 끝 부분에 예쁜 앞치마를 둘렀는데,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깜찍한 시도들로 인해 마치 TV속의 주인공들과 마주 앉아 담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스타와 이밤을」이 초대 스타들과 엮어가는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흔히들 초대 손님을 미화시키고, 스캔들성 신변잡담이나 늘어놓아 흥미를 유발시키기 마련이었는데 「스타와 이밤을」은 실패담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등 지금까지 많이 공개된 스타의 모습과는 다른 색깔의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OX퀴즈를 통한 행동심리체크'라든지 선물을 걸고 부르는 '노래방', 간식을 마련해 함께 먹으며 얘기하고, 다음 출연자를 미리 전화로 소개하는 등 시청자들에게는 아기자기한 재미를 주고 있다. S

박유미·서울시 양천구 신정 6동
신시가지아파트 1303동 804호

「투맨쇼, 두 남자와 만납시다」를 보고

"강한 개성을 지닌 두 남자의 조화가 주는 색다른 즐거움"

요즈음 텔레비전을 틀어 보면, 저녁 시간대에는 온통 신세대를 위한 쇼·오락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 투성이고, 심야에는 드라마 아니면 토크쇼가 방송되고 있다.

신세대들의 방송이 끝나고 하루를 마감한 즈음 중·장년층의 볼거리인 토크쇼가 시작된다. 이제는 토크쇼의 초기 제작 단계는 지났고, 시청자의 눈도 성숙해진 만큼 밤에 하는 토크쇼라 해서 꼭 흥미 위주의 대화나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중하고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시청자를 만족시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두 남자를 내세운 「투맨쇼, 두 남자와 만납시다」는 신선함과 이미 공인된 그들의 소탈한 편안함이 맞물려 큰 기대를 갖게 했다. 과연 얼마나 세련되고, 고급스런 웃음을 주는 프로일까?

우선 도입부가 너무 지루하다. 낭비라는 인상이 들 만큼 소품을 공들여 많이 만들어 놓고, 몇 초 보여 주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행위는 흥미를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또 화려한 개성을 지닌 두 사회자는 서로 보조의 자리를 면하려는 듯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고 다소 엉청하고 에로틱한 질문은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듯한 분위기도 시청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직은 분위기의 연결이 미숙하여 맥이 자주 끊기지만, 말 잘하는 두 남자의 독특한 개성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칫하면 잡담과 수다 투성이의 대화가 될 수도 있는 토크쇼에서 작지만 강한 감동으로 현대인의 생활에 정을 불어 넣어 주는 '작은 영웅' 코너는 무척 사랑스럽다. S

임송애·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1131
영아아파트 2동 101호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해결사, 청부 폭력의 실체」를 보고

"폭력 조직의 심장부에 접근해 사회적 병폐 고발"

일요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시작될 한 주에 대한 중압감과 노고를 떠올리며 허탈함에 사로 잡힌다. 별로 텔레비전을 즐기는 편이 아니지만 SBS－TV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는 현실감있는 소재 선택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어 자주 시청하는 편이다.

'해결사, 청부 폭력의 실체'편에서는 외국 영화나 소설 속에 존재하는 줄 알았던 청부 폭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즉 해결사의 실상을 다루면서 사회의 병폐를 해부했다. 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폭력의 모습과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금전만능주의가 배태한 폭력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양 무지막지하게 행해진 사건 현장은 마치 깽영화를 보는 것처럼 소름끼치게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실제 해결사들을 만나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사건들의 재연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가며 청부 폭력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며, 10대 청소년들의 탈선과 폭력서클의 가입 등이 예비 해결사군의 광범위한 조직 양산의 토대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결국 청부 폭력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연해졌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재 선택과 억울한 송사까지도 여론 형성의 힘으로 해결해주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휴머니즘적 시각이, 바로 문제를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며 무리없이 해결의 몫까지 담당해 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S

안승미·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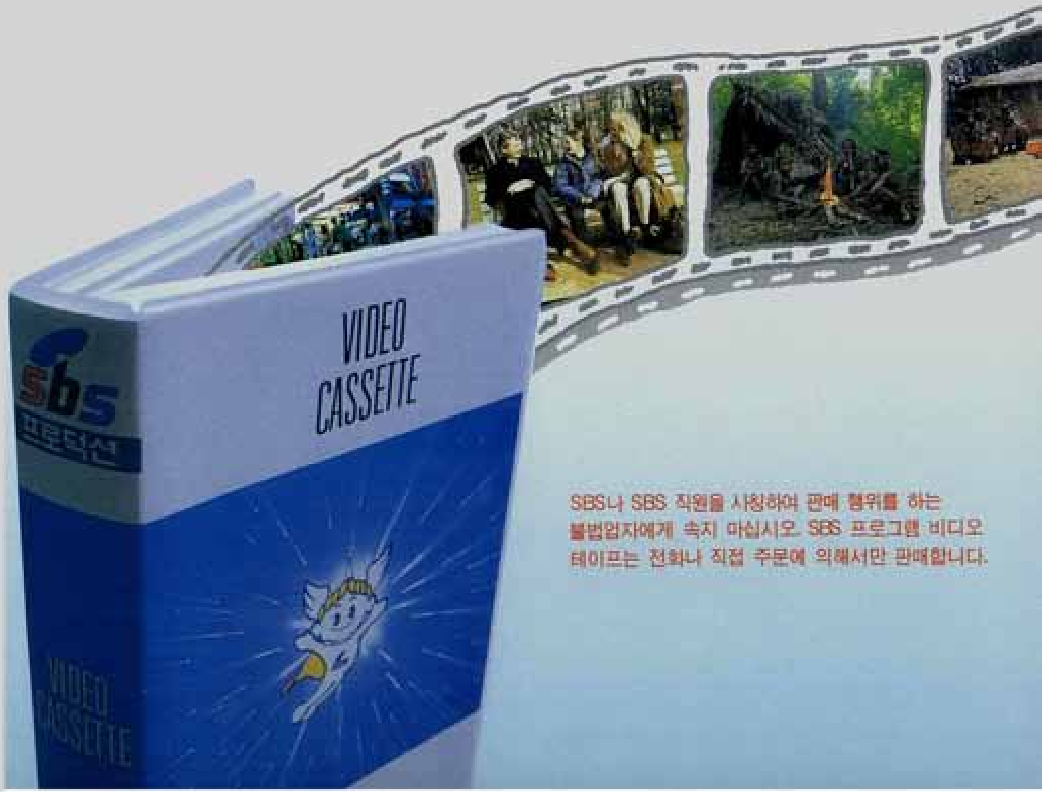
잠깐만!

SBS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다시 만나십시오

언제나 곁에 있는 기쁨과 감동

SBS 프로덕션은 SBS가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테이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놓치거나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 해외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고국의 향수와 인정을 담아보내고 싶으신 분, 또는 교육기관과 공공단체, 기업체의 연수용이나 홍보용 시청각 자료로 비치하려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SBS 프로덕션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드립니다.

판매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SBS 프로덕션 사업부
주문방법/전화(02)784-1343~4, 또는 Fax (02)784-6660
프로그램 가격(VHS테이프)
30분-1만 7,000원 60분-2만 4,000원 90분-3만 1,000원 120분-3만 5,000원



SBS나 SBS 직원을 사칭하여 판매 행위를 하는 불법업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SBS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는 전화나 직접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합니다.

「사랑하나 눈물반」 Ⅱ

우리 이웃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작은 행복

SBS프로덕션 발행, 총 320쪽, 값 5,000원

SBS-TV 「생방송 행복찾기」를 통해 소개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편지들이 한데 묶여져 지난해 3월 「사랑하나 눈물반」 단행본으로 출간된 데 이어 제 2권 「사랑하나 눈물반 Ⅱ」가 나왔다.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고, 아름답고 싶은 여심' '구차스럽기조차한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내는 부부이야기' '소꿉놀이 하듯 아기자기한 신혼의 철없는 부부이야기' '부모, 형제, 이웃에 대한 감사, 격려' 등 99편의 편지로 구성된 「사랑하나 눈물반 Ⅱ」에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작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와 따스한 우리 이웃의 삶이 담겨져 있다. 특히 14편의 이야기 뒤에는 편지가 방송된 뒤의 에피소드가 함께 실려 방송 이후의 뒷얘기까지 만나 볼 수 있다.

「알뜰살림 장만퀴즈」 5

지혜로운 주부의 행복가꾸기

SBS프로덕션 발행, 총 421쪽, 값 5,000원

주부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도전해 보고픈 프로그램 SBS-TV의 「알뜰살림 장만퀴즈」.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세상일에 귀기울이는 주부들의 모습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진다. 서울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답게 500회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알뜰살림 장만퀴즈」의 단행본 제5집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자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서울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해 수록했으며, 「알뜰살림 장만퀴즈」의 출연 방법과 예심 예상문제 그리고 방송되지 않았던 재미있는 NG이야기 등 다채로운 내용이 실려있다.

SBS 문화살롱

영화

「화엄경」이 특별상을 수상하
44회 베를린 영화제

가요

우리 가요계에
상륙준비를 하는 일본의 속셈

연극

연극의 상업광고 시대

공연

서울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가씨와 건달들」

광고

'한국적인 것'을
소재로 하는 광고 제작 붐

「화엄경」이 특별상을 수상한 44회 베를린 영화제

동양권 영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영화제

임재철·영화비평가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에 특별상인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안겨준 4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과연 유럽의 3대 영화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행사답게 그 규모와 조직면에서 대단한 이벤트였다. 11일간 마켓부문의 작품을 빼고도 무려 200편이 넘는 영화가 소개된 이번 영화제는 당연히 어떤 영화부터 보아야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행사였다.

독일, 더 정확히는 베를린을 유럽영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주최측의 노력은 출품된 작품의 양뿐만 아니라 지역 안배 등에서도 잘 느껴졌다.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포럼부문에서는 이러한 '영화적 주변부'의 작품들이 다수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포럼부문의 「몽고영화특집」 등은 다른 영화제에 비해 베를린 영화제가 동양권 영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경쟁부문 작품들은 몇몇 작품을 빼놓으면 기대에 전혀 못미치는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경쟁부문이 별 흥미를 끌어당기지 못한 큰 이유는 우선 대가들이 제대로 이름값을 못해냈다는 데 있다. 그 이름만으로 영화팬들을 설레게 할만한 인물들의 신작은 대개가 범작 내지는 태작에 지나지 않았다.

개막 작품인 베르나르도 베루톨루치의 「리틀 부다」에서부터 대가들의 몰락은 예견되기 시작했다. 2시간 30분에 이르는 이 대작은 도대체 그가 왕년에 「순응주의자」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만든 사람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지루하기 그지없는 영화였다. 마치 어린이를 위한 불교입문서를 억지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는 뻔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알랭 레네의 「스모킹」「노 스모킹」도 프랑스에서는 썩 호평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다. TV극 형식의 연쇄 드라마인 이 작품은 연출의 세밀함이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럼부문에 등장한 유럽영화 신세대의 기수 아키 카우리마스키의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모세를 만나다」도 혹평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유머감각이 신선함을 많이 잃은 데다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쟁부문이 별다른 열기를 보여주지 못한데에는 집행위원회의 지극히 보수적인 영화 선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집행위원회측은 조금이라도 관객을 피곤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작품은 모두 파노라마나 포럼부문으로 돌려버리고 경쟁부문은 그야말로 '무난한' 영화들로만 채워놓았다. 집행위원들이 영화를 보는 관점이란 '중산층적인 건전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억울하게 테러리스트로 몰린 한 사나이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린 그랑프리작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나름대로 힘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새로움을 보여주진 못한 작품이었다.

또 집행위원회의 미국영화, 특히 메이저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보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필라델피아」, 「리메인스 오브 더 데이」 등 올 아카데미상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이 경쟁부문에 선보였다. 만약 집행위원회의 당초 의도대로 스필버그의 「쉰들러의 리스트」까지 등장했다면 이번 베를린 영화제는 거의 '축소판 아카데미상'이 될 뻔했다. 유럽문화의 중심지에서 열리는 영화제이면서도 미국영화에 대해 이렇게 호의적인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칸느나 베니스 영화제처럼 미국영화와 일종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베를린 영화제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별로 높아질 것같지 않다.

포럼부문에서 이색적인 영화들을 몇 편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프랑스와 지라르가 만든 「글렌 굴드에 관한 32편의 단편 영화」는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삶을 짤막한 에피소드의 연쇄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적절히 결합한 것이 돋보인 이 작품은 뛰어난 '예술가 영화'로 손꼽힐만한 작품이었다.

아키 카우리마스키의 형인 미카 카우리마스키가 만든 「티그레로」는 영화 제작이 하나의 모험이었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영화로 영화광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작품이었다. B급 영화의 거장인 사무엘 풀러와 미국 인디펜던트의 영웅 진 자무쉬가 함께 브라질의 정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구세대와 신세대 영화작가의 따뜻한 교류를 잘 그려낸 작품이기도 하다. 풀러는 자신이 결국 완성하지 못한 영화 「티그레로」에 대해 자무쉬에게 이것저것을 설명한다. 그리고는 그가 못한 작업을 후배인 자무쉬가 완성해주기를 바라듯이 그를 인디오들의 마음에 남겨놓고 떠나간다.

어쨌든 베를린 영화제는 그리 높이 평가할 만한 영화 이벤트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화엄경」의 특별상 수상이 입증해 주다시피 한국영화가 서구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는 행사다. 「붉은 수수밭」「완영옥」 등이 바로 베를린 영화제를 통해 서구 관객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

우리 가요계에 상륙준비를 하는 일본의 속셈

음반 제작과 공연 기획의 활발한 투자와 보호가 시급

지명길·가요비평가

일본 문화의 개방이 얘기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문화의 전면 교류는 이루어지겠지만, 한일 문화교류의 전면 개방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누구나 우려하는 것은 대중가요 부분이다. 그것은 대중가요가 갖는 특성 중 잠재의식 속에 침투되는 메시지 전달력과 역시 무의식 중에 중독되는 캠페인적 요소가 다른 대중문화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는 선택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여지가 있겠지만 대중가요는 항상 접하는 전파를 통해 알게 모르게 듣게 되므로 그 역할이 대단히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사실 일본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일본 노래가 우리 가요에 비해서 월등한 것도 아니며 또 일본 노래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본 영화와 일본 노래가 이 땅에서 50년만에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면죄부를 내주는 느낌이어서 뭔가 석연치가 않다.

지금 문이 열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게 된다. 대중가요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경쟁력을 갖는 것은 뛰어난 가창력의 가수들과 그들도 한국을 원류로 알고 있는 트롯의 독특한 작품성 정도이다. 일본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이 땅에 마구 뿌려댈 생각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가요와 가수들을 대량 수입해 들여 일본에서의 한국붐을 조성하고 그 여세로 기업으로서의 한국 진출이 주목적인 것이다.

과거 일제 36년간 우리는 일본 레코드사의 지사나 대리점 혹은 문예 선전부의 역할만 해왔다. 녹음 시설이나 레코드 공장 하나

도 없이 그저 그들이 쥐고 있는 이권에 얽혀 신인가수를 발굴하고 곡을 썼으며 그 결과로 떠오른 인기가수를 앞세워 전국 순회 공연으로 그나마 연예산업을 일구어 왔다.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고 보니 음반계는 황무지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 6.25에서 오늘까지 우리는 아직도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자업계를 앞세워 오늘날 우리 나라를 기웃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우리 나라의 가전제품 3사가 음반계로 눈을 돌렸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된 노래방의 인기는 영세한 음반계에 활기를 불어 넣었지만, 그동안 외면하던 가전 3사의 참여로 또다른 양상의 경쟁이 불붙게 되었고 급기야는 일본의 국내 진출도 목전에 도달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가라오케로 우리 나라에 상륙했다. 반주 음악만 듣고 노래하게 하더니 점차 화면이 있는 영상 가라오케를 선보였고, 드디어 노래방의 열풍을 몰고 왔다. 움직이는 화면과 노래 반주에 자막이 처리된 LD 음반이 일본에서 제작되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 해가 지나면서 점차 확산되고 사업성이 보이게 되자 국내 자본이 앞 다투어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시작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 문화의 개방이 이르다 늦다는 논쟁은 의미도 설득력도 없다. 구미 각국의 라이센스 음반이 이미 직배사를 통해서 유통된지 오래이며 그 직배사에서 우리 가요 음반까지 제작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일본만을 막고 있는 것은 다만 우리의 국민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정치적인 타결이나 일본의 자세가 관건이 되겠으나 그것마저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는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음반협회, 연예협회, 저작권협회, 방송협회가 각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음반계는 일본 음반계의 국내 진출을 경계하되, 영세 소규모 PD메이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만약 이들이 일본 음반업자와 밀착되어 국내 전진기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으로 승부는 끝나고 만다.

연예협회도 공연물의 교류에 있어서 그 주도권 행사에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 공연기획보다는 기술에서 역부족인 우리의 공연문화는 어차피 한두 해 고전을 하겠지만 연예협회 차원의 보호망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왔다. 한국의 저작권 업무를 자문한다든가 직원의 무료 연수를 주선한다든가 하며 그들이 보인 정성은 대단하다. 그들의 속셈은 단 한가지다. 언젠가는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겠고 그때 일본의 음반과 공연물이 한국에 상륙하며 발생되는 저작권 보호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무성한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비책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은 기술과 자금이다. 기술 수준이 뒤떨어지는 녹음, 음반제작 등 국내 음반계의 보호방책과 막대한 투자로 잠식될 각종 연예산업의 식민지화 대책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일본 문화의 첫 대면을 주도할 방송사의 선별기준이 또한 중요하리라고 본다. 만약 방송사에서 일본 문화의 수입 경쟁이 붙는다면? 그 결과를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S

연극의 상업광고 시대

연극의 본질을 망각하는 지나친 상업성은 피해야

이영미·연극비평가

우리는 여러 종류의 극예술을 접하며 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어터(theatre)이자 드라마(drama)인 공연예술로서의 연극이지만, 이 연극을 원조로 하여 근·현대에 들어서서 매우 다양한 극예술, 드라마가 파생됐다. 극영화, 방송 드라마, 그리고 극화(劇畵, 드라마적인 만화)등 막강한 대중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예술이 모두 드라마의 일종인데, 시어터로서의 연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대 대중매체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드라마로서 극예술은 엄청난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극예술 중 유일하게 상업광고와 거리가 먼 종류는 역시 여전히 고급문화의 테두리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공연예술로서의 연극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상업광고의 존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극영화 상영의 전후나 만화 전문잡지에 광고가 따라붙는 것 역시 이미 오래 전에 관행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극에도 드디어 본격적인 상업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기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대학로극장의 「불 좀 꺼주세요」에는 실연(實演)광고가, 에이콤의 「아가씨와 건달들」에 광고를 겸한 무대장치가 등장함으로써 공연 부속물인 프로그램의 광고가 고작이었던 연극의 상업광고는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

「불 좀 꺼주세요」의 실연광고는 말 그대로 공연이 시작하기 전 배우들이 등장해서 모 화장품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것인데, 이 대가로 이 공연의 기획제작자인 대학로극장 측은 1년에 3,600만원의 광고료를 받는다. 「아가씨와 건달들」에서는 브로드웨이의 거리 풍경을 그린 무대장치에, 거리 풍경의 한 부분으로 삼성, 기아, 시티 뱅크, 말보로

담배 등 실제 기업의 간판이나 제품 광고를 그려넣음으로써 해당 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광고료로 상당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상업광고는 이전의 프로그램의 광고나 기업 협찬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전에도 연극에 대한 기업체의 재정적 후원은 있었다. 예를 들자면 실험극장에 모 의류업체, 연우무대에 모 요식업체가 후원을 했고, 이러한 경우 후원자인 기업은 일종의 기업 이미지 선전의 효과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업의 예술 문화 지원이라는 틀로 이루어졌으며, 예술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는 부차적이 것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 경우는 기본 형식이 후원이라기보다는 상업광고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우와 다르다. 「불 좀 꺼주세요」의 실연광고가 전문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기획한 것이라는 점은 상업광고로서의 성격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이들 광고는 연극을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이 연극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시공간을 비집고 들어옴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없이 그 광고를 보고 듣도록 만들고 있다. 실연광고는 관객 입장이 완전히 끝난 후인 공연 직전에 이루어지며, 「아가씨와 건달들」의 무대장치는 공연 내내 공연의 일부분으로 관객의 눈 앞에 펼쳐져 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에 따라붙은 광고나 프로 스포츠 선수의 유니폼에 새겨진 광고와 같아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인쇄물 광고와는 그 질이 다르다.

이러한 상업광고는 항시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연극에 조금이나마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예술 문화에 대한 기업의 후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광고라는 점에서 단지 기업과 연극과의 사이좋은 만남이라고 행복해 할 수만은 없다. 이 현상은 이제 연극 공연도 상업주의적 메커니즘 속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최근 연극문화의 상업주의화, 대중연극화의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해당 두 작품 모두 이전의 극단 체제가 아닌 기획·제작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처음 시도해보는 실연광고가 관객들 눈에 신선하게 보일지 모르며 아직까지는 연극 제작자측이 그 광고까지 제작하고 있으므로 본 공연과 실연광고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본격화되면 마치 방송광고처럼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자의 통제 밖에서 별도로 광고가 제작될 것이며 관객들은 지겨워하면서도 일정 시간 눈과 귀를 광고에 할애해야 될 것이다. 또한 연극 제작자는 점점 광고주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연극의 상업주의화는 더 더욱 심화되어 연극은 상업적 이벤트의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최근 연극의 상업주의화, 대중문화화 경향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아직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연극계 전체의 본격적인 논의와 능동적인 대처의 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기업과 연극과 대중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라도 그 만남의 방식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S

서울방송이 공동 주최한 「아가씨와 건달들」

연기와 음악의 절정미를 맘껏 뽐낸 야심작

이장직·음악비평가

우리 나라에 뮤지컬이 소개된 것은 1970년대에 활동했던 예그린 악단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예그린 악단의 「살짜기 옵서예」 공연 이후 서울 시립가무단, 극단 현대극장, 민중극장, 88예술단이 모태가 되었던 서울예술단 등이 뮤지컬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국공립 단체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기존의 연극과는 달리 뮤지컬은 오페라 공연에 버금가는 제작비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연된 뮤지컬도 대부분이 가장 대중적인 몇몇 작품에 국한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뮤지컬 하면 뉴욕을 연상할 정도로 뮤지컬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는 상류 계층의 과시욕의 산물인 오페라에 반기를 든 서민적인 오페레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방송이 공동 주최하여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아가씨와 건달들」은 1950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초연된 이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92년 말에는 브로드웨이에서도 재공연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3년 12월 극단 민중·광장·대중의 합동 공연으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뮤지컬로는 가장 많은 재공연 회수와 연인원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연극계에서는 「아가씨와 건달들」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뮤지컬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공연도 처음부터 상업적인 성공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는 것이었다. 개관한 지 얼마 안되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서 본격적인 뮤지컬을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도전장을 내놓은 이번 공연은 83년 당시의 공연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성

숙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문극단을 표방하고 창단한 에이콤의 앞으로 활동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19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고전으로 우뚝 서 있는 이 작품은 「코러스 라인」 「캐츠」 「판타스틱스」 「에비타」 「수퍼 스타 예수 그리스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포기와 베스」 등 국내에서 간헐적으로 소개된 뮤지컬에 비해 작품의 성숙도가 훨씬 돋보이는 뮤지컬이다.

브로드웨이 최고의 도박꾼 나싼(박인환 분)은 14년째 약혼 중인 애인 아들레이드(윤석화 분)의 눈을 피해 다시 도박판을 벌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최고의 도박꾼의 스카이(이승철 분)와 내기를 건다. 이들은 스카이가 콧대 높기로 유명한 구세군 선교사 사라(손봉숙 분)를 유혹하여 하바나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에 1,000달러를 걸었다. 사라는 스카이의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지만 선교 사무소의 존폐 위기가 걸린 목요기도회의 성공을 위해 죄인들을 동원해주겠다는 스카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바나까지 함께 갔다가 스카이와 사랑에 빠진다.

내기에 진 나싼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의 습격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으나 뒤따라온 아들레이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다. 아들레이드와의 결혼을 앞둔 총각파티라고 둘러대었던 것이다. 나싼은 비어있는 선교 사무소에 잠입하여 도박판을 벌이는데 성공하고 스카이는 도박꾼들과 내기를 걸어 이들을 모두 기도회에 참석시킨다. 구세군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나싼과 아들레이드, 스카이와 사라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다는 줄거리이다.

이 작품은 종교와 세속을 넘나들면서 핫박스에서의 짜릿한 볼거리, 구세군 군악대의 시가 행렬, 속도감있는 무대 전환의 즐거움, 스카이 역을 맡은 이승철의 중후한 연기, 빅쥴 역을 맡은 김옥만의 호탕함, 조연도 마다하지 않고 구세군 장군 역을 맡은 손숙과 브래니간 형사 역을 맡은 박웅의 연기가 뒷받침되어 공연의 성공을 가져왔다.

경쾌하고도 톡 쏘는 맛과 활기에 넘치는 「아가씨와 건달들」은 오프닝 넘버 '허풍쟁이 노름꾼을 위한 푸가'에서부터 음악, 줄거리, 무대, 대화, 가사, 무대미술, 의상, 인물 설정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본격적인 뮤지컬 무대를 유감없이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아들레이드의 탄식' '그 남자와 오늘 결혼해요'같은 솔로, 듀엣은 은연 중에 19세기 프랑스 오페레타의 전통에 충실하고 있다.

유봉헌 지휘의 에이컴 오케스트라의 생음악도 뮤지컬의 재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말해 주고 있었다. 다만 현악기를 보강하여 폭넓은 사운드를 구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바나에서의 이국 정서를 생음악으로 살리지 못한 것도 아쉽다.

뮤지컬의 생명력은 화려한 무대나 의상, 춤, 연기보다 음악에서 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한 분위기의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 윤석화의 뛰어난 노래 실력이 아니었더라면, 적어도 음악적인 면에서 여타의 뮤지컬 공연과 다를 바 없는 평년 수준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1950년대의 뮤지컬 고전을 비롯해 현재 서구에서 공연되고 있는 신작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0년대 한국의 상황을 담고 있는 창작 뮤지컬의 개발도 중요하다. 에이콤에서 내년에 공연 예정인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에 기대를 걸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S

SBS문화살롱 광고

'한국적인 것'을 소재로 하는 광고제작 붐

'우리 것'을 소중히 지켜가는 신토불이(身土不二) 광고

임인규·CF 감독

지난해 쌀시장까지 개방되면서부터 강대국의 개방 압력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변화에 특히 민감한 광고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발맞추듯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광고가 늘고 있다. 이미 광고계에도 시장 개방의 위력이 발생되었다. 즉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제작한 CF를 안방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제작된 우리만의 광고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것'이라는 광고는 CF만을 지칭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재면에서 '한국적인 것'을 택한 CF가 있다. '한국적 CF'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쉽게 '한국의 전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전통'하면 일차적으로 국악을 떠올리기 쉽고 과거에도 그런 소재의 CF는 있었다. 하지만 특정 유명인 중심이었고 제품도 한정적이었으며 선택할 소재도 다양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제작된 CF들은 제품의 영역 또한 다양해졌고 소재의 종류도 늘고 있다.

그동안 오디오제품이나 전자제품에서 국악인을 많이 출연시킨데 반해 요즘은 오디오 광고는 물론 정보잡지, 화장품, 의약, 음료 광고 등 여러 제품군에서 전통 예인을 모델로 한다. 그 예로 지난해 「서편제」란 영화 한 편으로 '한국의 여성미'를 상징하는 주인공이 된 영화배우 오정해는 롯데 매니아의 오디오 광고, 시사주간

정보지 「한겨레 21」의 광고, 네슈라 화장품의 광고 등에 출연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야"란 유행어까지 만든 솔표 우황청심원의 광고에는 이매방 씨가 출연하여 승무 중에 북소리 연주를 소재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예술을 보여주었다. 기업광고에서도 대거 국악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강강술래와 민요 등을 소재로 한 동화은행의 광고는 한국인이 공감하는 화합과 단결 정신을 표현했다.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우리의 전통이나 민족정신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CF가 늘어나는 요즘의 추세는 서구화에 익숙해지는 세대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 되는 바람직한 경향이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광고에는 제품의 특성에서 우리 것만 사용했음을 알리는 광고들도 있다. 지금의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더욱 서구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구적 입맛에 맞는 것, 세련되고 그럴듯한 외국 이름을 짓는 데에 박차를 가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감히 선입견에서 벗어나 농산물을 젊은이들에게 맞게 가공하고, 식품들도 순수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다고 힘주어 말하는 광고가 있으니, 소비자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다.

농협이 개발한 늉금쥬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친숙한 탤런트 김회애를 등장시켜 쥬스의 원액 또한 순수 우리 것임을 세련된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서구식 음료나 인스턴트 식사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젊은 회사원들에게 '내 고을 강호박'이란 제품은 우리 농산물을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CF 또한 재밌고 정감있게 보여진다.

이 밖에도 주부들의 공감을 얻는 CF들 중 100퍼센트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는 것으로 탤런트 김혜자가 설득력있게 "100퍼센트 콩으로 만들었다는데…"라는 백설식용유 CF도 있고, 제주 고구마를 100퍼센트 사용한 본가 당면 CF도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고려당의 밀빵 광고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자연에서 자란 우리 밀로 우리 밀빵을 만들었다는 광고에는 영상에서도 우리 농촌을 물씬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명 빵집 광고에서는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우리만의 맛을 빵 하나에 잘 나타내어 주었다.

세계의 개방 압력은 우리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과 함께 우린 경쟁력을 길러야 하고, 세계 무대에 우리 제품들이 우뚝 서게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비법과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들 말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고'도 우리의 것을 지키는 데 단단히 한 몫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된 다양한 표현의 한국 광고를 기대해본다. 또 그것이 우리의 광고가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정도(正道)라고 확신한다. 올 한 해 '신토불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을까 싶다. S

이달의 볼만한 SBS 영화

담당 PP/박광호 이경숙 주영중
방송/매주 금요일
밤 9시 40분~11시 25분

아이스 맨
(Ice Man)

방송/3월 4일
감독/ 프레드 세피시
주연/티모시 허튼, 린제이 크루스, 존 론

미국의 거대한 광산회사 겸 극지개발회사의 북극기지 연구소에서 일하는 의학, 고고인류학, 생화학 연구진은 어느날 빙하 속에서 약 2만년 전 인간으로 추정되는 원시인의 냉동된 시신을 발견한다.

연구기지로 그 얼음덩이를 가져다 녹인 연구진들은 인공 혈액을 주입시켜 갖가지 약품과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를 살려내는 데 성공한다.

젊은 고고인류학자인 세퍼드 박사는 연구팀들이 그를 생체 해부하여 미국 각지의 의과대학에 몸의 각 부분을 보내서 연구시키기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연구할 기간을 달라고 애원, 2주일의 기간을 얻어낸다.

찰리란 이름을 붙인 이 원시인은 인공의 원시환경에서 혼자 옛 삶의 방식을 재현해 보다가 세퍼드와 친구가 되고, 알 수 없는 음향과 언어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본국에서 달려온 언어학의 권위자는 그 언어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에스키모 조상의 말과 비슷한 음성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찰리는 세퍼드의 우정 속에서 나날을 보내지만 의학팀이 툭하면 찔러대는 주사와 여러 가지 약물 실험때문에 쇠약해진다. 어

느날 헬리콥터가 기지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본 그는 고대에 그의 직업이었던 제관의 일을 기억해내고 풍요로운 사냥을 기원하는 의식을 시작한다. 그 의식은 거대한 새 모양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에스키모 원주민의 전설과 신의 이름과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다 된데다 찰리가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북극 연구소팀들은 찰리를 분해해서 연구자료로 후송하려고 한다. $

오스터먼의 주말
(Osterman Weekend)

방송/3월 11일
감독/샘 페킨파
주연/루트거 하이어, 버트 랭카스터, 존 허트

조직이나 국가 안보보다는 개인의 사생활과 생존권의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재미와 의미를 적절하게 배합시킨 긴박감 넘치는 첩보물.

공권력으로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는 사례를 과감히 폭로해 온 TV 프로그램 「정면돌파」의 진행자 존 태너에게 어느날 CIA 국장 댄 포드가 은밀히 협조를 요청해온다. 그의 속셈은 대권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 비판자이자 걸림돌인 태너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댄 포드 국장은 태너의 친구 세 명을 소련의 고정 간첩인 것처럼 꾸며 공작의 대가 패세트를 기용하여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 KGB와의 모종의 거래상 패세트 모르게 그의 아내를 KGB가 살해하도록 묵인했던 댄 포드로서는 패세트가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기용했던 것이나, 패세트는 오히려 댄 포드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게 된다.

CIA측은 '오메가'라는 암호를 가지고 고성능 감시 카메라, TV 모니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태너로 하여금 친구들이 간첩인 것으로 믿게 만든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세금때문에 해외로 돈을 빼돌렸던 태너의 친구들은 정례 모임인 '오스터먼의 주말'을 즐기러 태너의 집에 왔다가 패세트의 공작에 희생되고 만다. 그러나 결국 태너는 댄 포드와 패세트의 공작 실체를 알아내고, 이들을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죄상을 폭로해 버린다. $

이달의 볼만한 SBS 영화

아직은 사랑을 몰라요
(Sixteen Candles)

방송/3월 18일
감독/존 휴즈
주연/몰리 링월드, 안토니 마이클 홀, 폴 돌리

보수적인 집안의 둘째 딸인 사만다는 가족들이 하이틴이 된 자기의 생일을 깜빡 잊어버리자 몹시 화가 난다. 그러나 언니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집안은 친가와 외가 친지들이 몰려와 어수선하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사만다는 학교 친구 제이크가 맘에 들긴 하지만 수줍어서 말 한마디 걸지 못한다. 혼자 애태우고 있는데 전혀 관심없는 남학생 기크가 데이트를 신청한다. 사만다가 사실 제이크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기크는 데이트를 했다는 걸 친구들한테 증명해 보이게 손수건을 10분만 빌려 달라고 사정하고, 사만다는 이에 응한다.

이 손수건 사건은 곧 남학생들 사이에 유명해져서 기크와 사만다가 데이트를 한 것으로 소문이 난다. 수줍은 사만다는 괴로워하며 더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그러나 기크는 제이크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 놓고 사만다가 그를 좋아한다는 애기까지 해준다.

한편 자기의 여자 친구한테서 싫증이 난 제이크는 그녀와 다른 사만다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한다. 언니의 결혼식이 끝날 즈음 교회로 제이크가 찾아온다. 언니가 벗어던진 웨딩드레스의 베일을 소중하게 찾아 들고 나오던 사만다는 제이크를 보고 깜짝 놀란다. 제이크는 사만다의 손수건을 돌려주며 데이트 신청을 한다. S

뚱보 삼총사

(Disorderlies)

방송/3월 25일

감독/마이클 슐츠

주연/마크 모랄레르, 대런 로빈슨,
데이먼 웜블리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며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맘껏 풀 수 있는 코미디 영화.

병원에서 의료 보조 간병인으로 있는 세 뚱보 마키, 쿨, 버피는 좀 덜 떨어진 듯한 얼간이들로서 항상 배고픔 때문에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일하고 있던 병원 식당에서도 해고되고 만다.

그런데 자칭 천재라고 생각하는 얼간이같은 로리는 도박에 눈이 어두워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모자라서 갱 두목인 루이스 몬타나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서까지 노름을 하나 빚만 지게 된다. 루이스 몬타나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로리는 돈 많은 삼촌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삼촌을 하루라도 빨리 죽게 해서 그 유산으로 빚을 갚을 계획을 꾸민다.

그 계획의 첫 단계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뒤집어 씌울 머저리 같은 간병인들을 찾던 중 마키 일행을 발견하고 그들을 간병인으로 고용한다. 모처럼 새 일자리를 얻은 마키 일행은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보려고는 하나 여전히 실수만 연발하고, 그 실수로 인해 자기 삼촌 앨버트를 죽이려는 로리의 계획은 번번히 무산된다. 그러나 그 실수의 결과 전혀 엉뚱하게도 다 죽어가던 앨버트는 20대 못지않은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

이에 마키 일행은 앨버트의 신임을 톡톡히 얻게 되나, 계획이 틀어진 것을 눈치 챈 로리에 의해 죄를 뒤집어 쓰고 경찰서에 잡혀간다. 그들이 없는 동안 로리는 루이스 일당을 끌어들여 앨버트를 죽이고 돈을 강탈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 경찰서를 탈출한 쿨과 버피에 의해 좌절되고 그들은 모두 감옥행이 되고 만다. S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

장난감 하나에 담긴 과학의 올바른 힘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우리집은 총기 보관소 같다. 6개월 전에 시작된 현이의 총기 수집때문에 방 곳곳에 총이 널려있다.
M16, KG, 레밍턴, 스미스 웨슨, 오메가 등등 군대에 갔다온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초현대식 첨단 무기란다.
영화 「로보캅」을 보고는 '오토'가, 「터미네이터」를 본 후 '레밍턴'이 그리고 「머나먼 쏭바강」을 본 뒤 M16이 무려 5정이 구입됐다. 요사이 이런 총들은 실물 크기에 예전같이 얼렁뚱땅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결코 싸지 않은 과학용품이다. 실제로 이 장난감 총들이 영화나 TV드라마의 소품이나 특수효과에 쓰인다고 한다.

이 총들을 팔에 끼고 식탁과 의자 침대 장농 사이를 엄폐물 삼아 누비고 다니는 현이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총이 가지는 파괴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총이 소유하는 자의 마음에 따라 전쟁과 평화, 어느 쪽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이해할까.

나는 현이가 조그만 손으로 만지는 그 장난감 총들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으면 하고 바란다.
총을 구성하는 많은 부속들, 그 연관성 없을 것 같은 부품들이 조립 완성되었을 때 가지는 엄청난 힘. 공이가 뒤로 물러서야만 총알을 때릴 수 있다는 그 현학적 의미.
현이가 이런 원리를 하나하나 터득해나간다면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생각과 과학의 실체적 도구가 될 것이고 현이는 그런 장난감을 통해 깊이있고 과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총에 맞는 상대방의 아픔도 생각해보는 아량있는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TV제작국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듀서

'94 SBS 캠페인
어린이를 바르게

SBS－TV 주간 기본 편성표

SBS－TV Ch－6

1994년 3월 1일 현재

시	분	월	화	수	목	금
AM 6		출발! 서울의 아침 — 새벽을 달린다				
7		출발! 서울의 아침 – 좋은 아침 기쁜 정보				
8	15	아침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8	45	알뜰살림 장만퀴즈				
9	15	오늘 이사람				
9	40	SBS 뉴스라인				
10						
11						
PM 12						
1						
2						
3						
4						
5	30	SBS 530 뉴스				
5	45	만나고싶어요	빈이랑, 윤화랑	도전!할수있어요	도레미 잉글리시	사랑의 징검다리
6	05	백투 더 퓨처		거북이 특공대		
6	15					만화극장
6	35	슈퍼맨		쌍둥이 줄르 줄리		
7	05	신세대 천원집합	대결 20/40	달리는 TV 그것을 찾아라	엄싸비디오쇼	공룡선생
8		SBS 8 뉴스				
8	45	SBS 수도권 뉴스				
8	50	SBS 월화드라마 세남자 세여자		SBS 수목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		코미디 전망대
9	40					SBS 영화특급
9	45	SBS 헤드라인 뉴스				
9	50	결혼		연중기획 21세기 신한국의 선택	SBS시사기획	
10	50	SBS 스포츠 뉴스				
10	55	스타와 이밤을		SBS 외화시리즈 쿵푸	집중! 여섯명의 여자	
11	25					SBS 스포츠뉴스
11	30					금요 골프
11	50	SBS 마감 뉴스				
AM 12	50					SBS 마감뉴스
	01:00					

「토요특집!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토요특집! 출발 서울의 아침」에 정보를 대폭 강화하여 새롭게 단장한 「토요특집! 좋은 아침입니다」에는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는 '활기찬 아침입니다', '허정 박사의 건강수첩'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이나미의 행복 상담실' 문화, 연예가 소식, 현실의 뛰는 삶의 현장 등이 4부로 나뉘어서 즐거운 토요일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 줍니다.

시	분	토	일	분	시
AM 6		토요특집! 좋은 아침입니다	젊은 인생		AM 6
7			SBS 일요아침뉴스		7
7			SBS 일요포럼	10	7
8	15	아침연속극 행복하고 싶어요	만화잔치		8
8	45	알뜰살림 장만퀴즈	공개 드라마 사랑은 생방송	50	8
9	15	오늘 이사람			9
9	40	SBS 뉴스라인			9
9			SBS 일요아침뉴스	50	9
10		생방송 행복찾기	일요아침극장 심주		10
11			주부 만세		11
PM 12		SBS 낮 뉴스			PM 12
12	10	SBS 볼링	SBS 일요명화	10	12
1	10	특선			1
2		스포츠 중계			2
3	50	재방송	해외 특별기획 세계의 어린이	50	3
4	50	SBS 저녁뉴스		50	4
5		스포츠 특선만화 피구왕 통키	스타, 서울스타		5
5	50	기쁜 우리 토요일			5
5			열려라! 웃음천국	55	5
6	55	웃으며 삽시다			6
7			일요 공개 드라마 오경장		7
8		SBS 8 뉴스			8
8	35	SBS 스포츠 뉴스		35	8
8	45	SBS 주말극장 일과 사랑		45	8
9	45	두맨쇼 두 남자와 만납시다		45	9
10	5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10
10	55	SF 시리즈 타임 트랙스	그것이 알고 싶다	55	10
11	55	잠깐뉴스	잠깐뉴스		11
AM 12		SBS세계 바둑 최강전	달리는 사람들		AM 12
12			TV를 말한다	30	12

SBS 라디오 주간 기본 편성표

SBS AM 792 KHzHLSQ

1994년 3월 1일 현재

시	분	월~토	일	분	시
AM 5		뉴스	뉴스		AM 5
	05	마음은 언제나 청춘 • 진행/반운복 • 연출/박성원	마음은 언제나 청춘	05	
6		뉴스	뉴스		6
	05	출발 성공시대 • 진행/권오근 • 연출/전윤표	출발 성공시대	05	
	30	뉴스			
7		아침종합뉴스	아침종합뉴스		7
			녹색시대	10	
	20	녹색시대 • 진행/이영혜 • 연출/이정은		15	
	25	공항정보			
	30	서울 전망대 • 진행/유자효 • 연출/이영일	서울 전망대		
8		SBS 뉴스센터	뉴스		8
			작은 사람 큰 이야기	05	
	25	자동차 문화 • 진행/선우효웅, 박상용 • 연출/신용헌	자동차 문화	25	
	30	정오종합뉴스 (8:30~6:20, 월~토) / 정보 특급! 행복만들기 • 진행/배한성, 송도영 • 연출/박동주	정보 특급! 행복만들기	30	
9			정오 종합뉴스 (9~5:55, 일)		9
10					10
11		지구촌 24시 • 진행/조경철 • 연출/김상일			11
PM 12	20	정오종합뉴스 / 한용진의 가요 드라이브 • 연출/이진규	정오 종합뉴스	10	PM 12
1					1
2		노래 한마당 • 진행/박일, 이선주 • 연출/김국은			2
3		• 매시15, 45분 쿼터뉴스 •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3
4		트롯 대행진 • 진행/이세훈 • 연출/김동운			4
5	55			55	5
6	20	SBS 뉴스대행진 / 792 파노라마 • 진행/김종찬 • 연출/전윤표	이미자의 가요앨범 • 연출/이해성 / SBS 뉴스대행진	10	6
7					7
8		서울 이야기 • 진행/오현경 • 연출/박건삼			8
9		기쁜 우리 젊은 날 • 진행/김영섭 • 연출/김광태			9
10		•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 매시 정각에 뉴스		10
11		스테레오 콘서트 • 진행/유익종 • 연출/신형철			11
AM 12		뉴스	뉴스		AM 12
	5	달빛노래 • 진행/임국희 • 연출/이재춘	달빛노래	5	
1		밤이 흐르는 곳에 • 진행/한종희 • 연출/이재춘	밤이 흐르는 곳에		1

● 기상 정보/아침 6:05(월~토) ● 도로 정보/정시, 30분 뉴스 후(오전 7:00~오후 9:00)

건강한 기업정신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정성과 성실을 다하여 새시대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생활문화와 밝은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직 정성과 성실의
자세로 일관해온 태영가족 —
토목·건축·주택·탱크터미널·싸이로·화학·환경·레저·민영방송과
기초과학산업의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취적인 기업정신이 깃든 신뢰할 수 있는 내실의 기업, 태영은
오늘도 새시대의 건강한 사회, 밝은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방·송/건·강·한·사·회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이념으로 민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는 SBS서울방송은 세계화, 다양화, 고급화된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태영

태영산업·태영레저·태영화학
서울방송·서암학술장학재단

인간과 기술의 만남—
테크노피아
누가 멀티미디어 기술을
말할 수 있는가?
언제라도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꿈의 테크놀러지
멀티미디어가 끝없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생활의 여유와 행복입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시대가 저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전자기술에서 컴퓨터, 광통신 기술까지
멀티미디어는 복합기술!
다양한 영역에서
첨단기술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금성이
일찌감치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멀티미디어 기술—
금성은 하이미디어 기술로 앞서 갑니다.
GS 금성
가전미디어 CU •산전 CU •정보통신 CU •일렉트론 CU •방산 CU •전선 CU
하이미디어 기술이란?